1)산스끄리뜨어로서의 인도-아랴어, 그리고 인도-이란어

// 인도-아랴어 또는 인도어(Indic)는 인도-유럽어들 중 인도-이란어(Indo-Iranian) 집단의 하위 집단을 구성한다. **고대 인도-아랴어**, 즉 **산스끄리트어**(Sanskrit)은 수많은 재원들에서 나타난다. 가장 이른 인도 문학 작품들은 베다 텍스트들이다. 이것들 중 가장 고대의 것인 리그베다(Rigveda)는 기원전 두 번째 밀레니엄 중반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후기 베다 중의 하나가 문법가 빠니니(Pāṇini, 약 기원전 5 세기)에 의해서 묘사된다. 보존된 가장 빠른 중기 인도아랴어 문서들은 다양한 방언들로 쓰여진 아쇼까(Ashoka, 기원전 약 3 세기) 황제의 칙령들이다. 그리고 중기 인도아랴어는 문학과 철학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봉사한

다. 불교 경전과 Theravāda 붓디즘의 서적들은 **빨리어**(Pali)라고 불리우는 혼합 언어로 쓰였다. 자이나교(jaina) 경전은 Ardhamāgadhī로 쓰여지며 그리고 자이나교도들도 마찬가지로 Śaurasenī와 Jania Mābārāṣṭrī를 자신들의 저서들에서 사용한다. 중기 인도아랴어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문학 예(例)는 Mābārāṣṭrī이다. Apabhraṃśa라 불리우는 일련의 방언들은 가장 발전된 중기 인도아랴어를 나타낸다. 이러한 모든 다양함들이 **Prākrits**(Skt. prākr∞ita-, Pkt. pāia- (natural))라고 불리우며, saṃskṛta-(**Sanskrit**)라고 불리우는 세련된 교양언어와 대조된다.

현대의 인도아랴 언어들은 거칠게 다음처럼 하위 그룹지워질 수 있다: Assames, **Bengali**, Oriya, Bhojpuri; Maithili; **Hindi**; Braj; Nepali; **Punjabi**; Rajasthani에 포괄되는 방언들; **Sindhi**; Gujarati, Marathi, Konkani; Kashmiri 그리고 다른 것들. 이것들은 인도 아대륙(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쪽에서, Sinhala가 거기에서 말해지는 스리랑카(Sri Lanka)에서 그리고 남동아시아와 유럽과 서반구을 포함하는 이주(migration, 移住)지역에서 말해지는 것들이다. 유럽과 중동의 **집시(Gypsies)의 언어들인 Romany** 역시 인도-아랴어에 속한다 //. / 집단적으로 'Romany'라고 불리우는 집시들의 언어는 아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우리가 집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폭넓게 흩어진 거주지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인도에서 갈라져나갔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무수한 침입들로 인하여 도망치거나 쫓겨, 인도에서 흩어져 나간 집시들! /. // 가장 초기의 인도 현대문학 문서들은 기원후 12세기 정도 날짜가 메겨질 수 있다(Bloch 1934, Turner 1966-69, Varma 1973-76, 그리고 Cardona 1987a, b 등을 참조하라). //

/ 아라얀 또는 인도-이란어족(The Aryan or Indo-Iranian Family)은 아래 도식처럼 간략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인도 아랴어들은 인도의 북부와 중앙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여전히 말해지고 있는 그리고 Ceylon의 Sinhalese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유럽어군의 세덤(satem) 언어이다.

분류—기원전 14세기의 Mitanni 지역(북동 시리아)의 비문들은 인도이란어(**Indo-Iranian**)류형의 고유명사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인도-아랴어(**Indo-Aryan speech**)의

가장 오래된 표본은 가장 오래된 이란어를 아주 밀접하게 닮는다(112쪽 참조). **말**(speech)의 두 오랜 형식들의 발전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소 다른 노선들을 따랐다. 이것은 두 자음들의 통어관계(nexus, 문장구성요소의 주어와 술어의 通語關係)에 있어 가장 잘 나타난다. 현대 이란어는 자주 그 통어관계를 거의 또는 전혀 바꾸지 않는 반면 현대 인도-아랴어는 그 관계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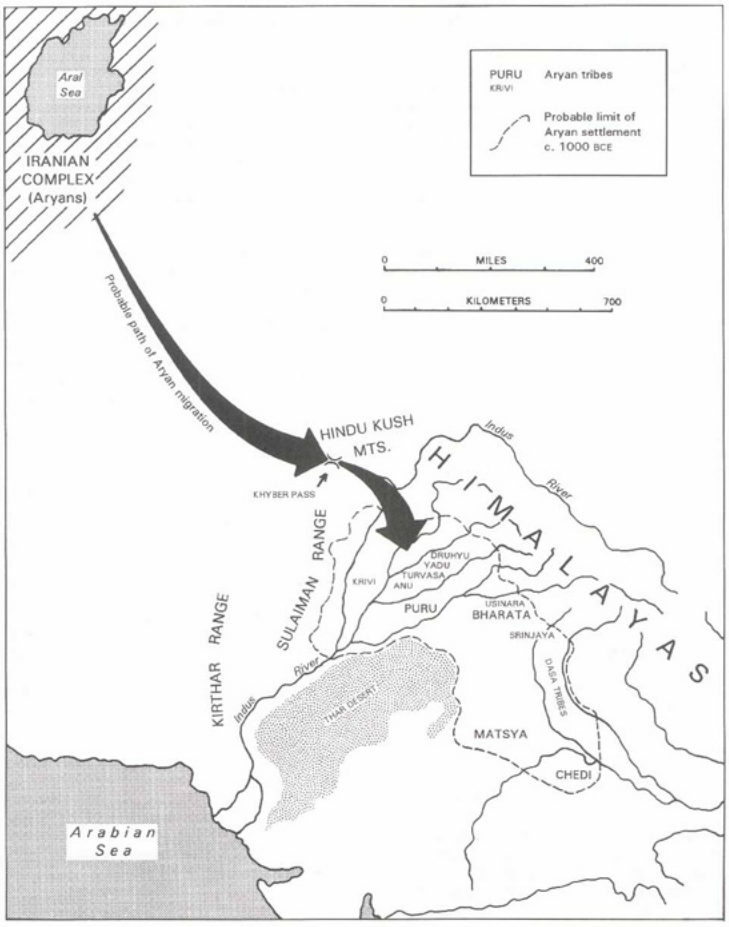
인도-아랴어의 가장 초기의 방대한 문어적 기록은 리그베다(**Rigveda**)로 알려진 찬양모음집이다. 리그베다는 *펀잡(Punjab) 동쪽*에서 그리고 *윗쪽 the Gangetic Doab*에서 말해졌던 독특한 토속 방언을 나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후에 그것은 펀잡과 현대 Allahabad 사이의 히말라야로부터 Vindhya 언덕까지, 산스끄리뜨 지리학자들에게 **Madhyadēśa** 또는 중간땅(**Midland**), 마찬가지로 **Ārayāvarta** 또는 '**Aryans(아라얀)의 고향**'이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을 넘어 확장됐다. 거기에서 그것은 문어적인 문화를 꾸준히 받아였으며, 그리고 그것의 고대(archaic)방언의 정제된 형식이 기원전 4 세기 동안의 문법학자들의 노력들에 의해 고정된 결과 그 베다 언어는 동일한 트랙(track)의 민속 말(folk speech)과 **Prākṛta**(Prakrit)(자연스러운, 정제되지 않은) 이라는 명칭 아래서 함께 그룹지어질 수 있는 인도의 다른 부분의 많은 인도-아라얀 방언들과 대조되는 **Saṁskṛta**(Sanskrit)(세련된, 정제

<table>
<tr><th colspan="4">The Aryan or Indo-Iranian Family</th></tr>
<tr><th colspan="2">Irano-Aryan</th><th colspan="2">Indo-Aryan</th></tr>
<tr><th>Avestan</th><th>Old Persian</th><th colspan="2">Vedic</th></tr>
<tr><td>조로아스터 또는 짜라투스트라의 추종자들의 서적언어</td><td>고대 페르시아 기원전 559-330 Achaemenian 왕조의 비문들에서 확인되는 언어</td><td colspan="2">브라흐마나스(Brāhmaṇas)와 아랴나카스(Āraṇyakas)와 우빠니샤드(Upaniṣaads)를 포함한 베다의 언어</td></tr>
<tr><td rowspan="2"></td><td>Middle Persian 또는 Pahlavī</td><td>Sanskrit</td><td>Prakrit</td></tr>
<tr><td>아르사키드와 사산 왕조의 언어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도들의 언어를 포괄하는 언어</td><td>Mahābhārata와 māyaṇa 그리고 연이어지는 모든 텍스트들의 언어</td><td>힌디어와 우르두어와 방갈리어와 Oṇyā와 Gujarātī와 Marāṭhī 등 등의 현대 인도언어들이 이로부터궁극적으로 유래한 일상(spoken)언어.</td></tr>
<tr><td></td><td>New or morden Persian(또는 Fārsī).</td><td>3</td><td></td></tr>
</table>

된)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된다. 산스끄리뜨어는 종교와 교양문학의 언어가 되며 그래서 그것의 어머니 방언의 토착 땅인 그 Midland(중간땅)은 인도-아라얀 말(speech)의 진짜 순수한 집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양한 방언들—Aśoka(기원전 269-232년 경) 시대에는 동과 서와 극 북서 지역에 세 가지 방언이 각각 최소한도 있었다. 문법가 Patañjali(기원전 150년)는 여러 방언들의 존재를 언급한다.

베다 시대 때, 그 **중간 땅** 주위의 서쪽과 남쪽과 동쪽 세 군데에서의 인도-아라얀 방언들은 중간 땅의 그 언어에게 자기들이 관련되는 것 보다 더 밀접하게 서로 모두에게 관련되어 말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도 언어 역사 초기에는, G.A.Grierson에 의해 상정된 도식에 따르면, 하나는 중간 땅의 그 언어요 다른 하나는 외부 밴드(Outer Band)를 형성하는 방언들의 언어인 두 세트의 인도-아라얀 방언들이 있었다.



Map 5 Indo-Aryan South Asia, c. 1000 BCE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간 땅의 사람들은 동쪽 펀잡과 그들이 거기에서 바다에 도달한 Gujarat, Rajputana, 그리고 Oudh를 정복했다. 따라서 이들 모두 지역들에서 혼합된 형태의 말(speech)이 발견된다. 각자의 토대는 외부 밴드의 그것이었지만 그 몸은 중간 땅의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 땅으로부터 이런 트랙의 바깥 경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간 땅 언어의 영향은 점점 약해짐과 동시에 바깥 본디 언어의 트랙들이 점 점 더 우세하게 됐다. 이와

동일한 길에서 외부 밴드(Outer band)의 언어들이 점점 더 멀리 Marahta 지역을 넘어 Orissa와 Bengal과 모든 것의 마지막, Assam까지 다그쳐 퍼지게 됐다.

현대에서는 **중간 땅 인도-아랴얀 언어(western Hindī)**는 Gangetic Doab와 그 북쪽과 남쪽에 직접 닿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 주위 세 쪽에는 (중앙 펀잡의) Panjabi와 Gujarati와 (Rajasthani와 그 인근지역의)Rajajstani와 (Oudh와 그 남쪽지역의)eastern Hindī 등의 혼합 밴드가 있다. 다시 이것들을 넘어서서, 바깥(Outer)언어들(Kashmiri의 Dardic basis와 더불어, Kashmiri), (서쪽 펀잡의)Lahndā와 Sindhi(여기의 그 밴드는 Gujarati에 의해 끊어진다)와 Marathi와 (Orissa의) Oriya와 Bihari와 Bengali와 Asssamese이 있다. 중간 땅의 북쪽 히말라야의 Pahari 언어는 Rajputana로부터 최근에 수입되고 있는 매개 밴드에 속하는 반면 Kohistani는 Sivat와 Indus Kohistans의 혼합 방언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 중간땅 언어는 **말**을 매개하는 형태의 둥근 펜스 안에서 닫혀진다.

1-1) 인도 현대 언어들.

인도 반도의 주요 언어들은 1951년 9월 1일 수정된 헌법 8 번째 별표(schedule)에 언급된 것에 따르면 14 개 어이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다: Hindi, Urdu, Panjabi(1961년, Pahari까지 합쳐 토탈 171,909,108 명의 말하는 사람); Telugu(37, 668,132); Bengali(83, 974,908); Marathi(33,288,274); Tamil(30,562,706); Gujarati(20,548,799), Kanarese(Kannada)(17,415,827); Malayalam(17,015,782); Oriya(15,732,697); Assamese(6,804,223); Kashmiri(1,998,641); 그리고 Sanskrit. 인도 헌법에 따르면 Devanagari 쓰기법을 채용하는 **Hindi**가 공식언어로 확정됐을 때인 1965년까지 인도의 공식언어는 **영어**였다. 언어적인 토대에 근거하여 몇 몇나라(states, 주, 州)들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의 위임장이(commission) 1948 년에 보고됐다. 연이어 Andhra 주(state, 州)는 Telugu어로 말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1953년에 확정됐고, Malayalam어로 말하는 자들의 Kerala는 1956년에 확정됐다. Mysore는 마찬가지로 1956 년에 Kanarese어로 말하는 자들을 연합하기 위해 재 조직된 반면, Marati어로 말하는 자를 포함하 Mahrashtra 주와 Gujarati어로 말하는 자들의 Gujarat는 1960년에 헌법이 제정됐다. 1966 년에 펀잡 주는 Punjabi Suba와 Hariāna의 새로운 주들을 형성하기 위해 언어학적인 라인들에 근거하여 재 조직됐다. 파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Urdu, 서 파키스탄)와 벵갈어(Bengali(동 파키스탄)가 주요 언어들이다. 영어는 공식적인 의도와 고등 교육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Lahnda(서 Panjabi 26,205,239 명의 말하는 사람; Sindhi(6,342,151); Pashto와 Balochi(마지막 이

두 언어는 모두 Iranian language이다)도 마찬가지로 서 파키스탄에서 말해진다.

위 모든 언어들은 인도-유럽어와 드라비다어(Dravidian) 라는 커다란 두 어군에 귀속된다. 인도-유럽어군의 인도-이란어 가지의 인도-아랴(Aryan) 집단에 속하는 것들을 적은 몇 몇 구성원들도 포함하여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목록이 작성된다: ㄱ)북서 집단: Lahnda와 Sindhi; ㄴ)남부 집단: Marathi와 관련 방언들; ㄷ)동부집단: Bengali, Oriya, Assamese, Bihari(Bhojpuri와 Maithili와 Magahi를 포함하여, 토탈 37,218,574명의 말하는 사람들); ㄹ)동-중부 집단: Eastern Hindi와 방언들; ㅁ)중부집단: Hindi, 문학 Urdu어, Eastern Panjabi, Gujarati, Rajasthani(15,086,180명의 말하는 사람들); Bhili 방언들(2,439,611); ㅂ)북 또는 Pahari집단: 동부Pahari(Nepali)(1,021,102);

Garhwali와 Kumaoni(1,840,211); 서부Pahari; ㅅ)외부 인도어 집단: Sinahlese; 그리고 서 아시아와 유럽의 gypsy 방언들.

먼 북서 지역의 Dardic 집단도 마찬가지로 인도어 유형의 인도-유럽 언어들이며 Kashmiri와 Shina(1,558)를 포함한다. 이런 말(tongues)들은 모두 때로 **산스끄리뜨어** 라고 묘사된다. 그것들의 유사함(affinities)들이 어느 정도 산스끄리트를 지시함으로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현대 인도어를 위한 가장 큰 고전 재원인 이 산스끄리트어는 드라비다어에게도 [말, 글들을] 빌려주었다.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에 대해 산스끄리트어가 맺는 밀접한 관계가 1786 년에 William Jones 경에 의해 대담하게 진술됐다. S.K.Chatterji는 산스끄리트어를 ‘ 인도의 위대한 아랴어이며 우리의 서구와의 위대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연결’이라고 불렀다.

남 인도의 네 가지 큰 문어적(literary) **드라비다어**는 Tamil과 Telugu와 Kanarese와 Malayalam이다. 이 이외에도 Tulu(1,501,431 명의 말하는 사람들)와 Kodagu(Coori)(7,9172)와 Gondi(1,501,431)와 Brahui(366,021)와 같은 비문어적적인 많은 드라비다어들이 있다. Baluchista에 있는 Brahui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남부에 있다.

인도의 다른 언어들 대부분은 Munda와 Tibeto-Burmann와 같은 덜 의의있는 두 어군에 배당된다. 때로 Austroasistic 또는 Austric이라고도 불리우는 Munda어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남동 아시아의 Non-Khmer와 관련있다고 생각됐다. 이것들은 어떤 다른 소위 원주민의(aboriginal)언어들보다 훨씬 많은(3,688,513) 사람들에 의해 말해지고 있는 Khasi와 Santali를 포함한다. 관련된 다른 언어들은 Nundari(737,937)와 Savara 또는 Sora(265,721)이다. Manipuri(Assam)과 Newari(Nepal)은, Bodo 집단의 Lushai와 Garo와 같은 다수의 다른 언어들과 나란히, Tibeto-Burman 어군에 속한다고 말해져 왔다.

Hindus의 신성하고 고전적인 언어인 **산스끄리트어**는 모든 인도에 걸쳐 인정되는 Nagari 또는 **Devanagari** 스크립트(Script, 쓰기법)으로 쓰여진다. **Hindi**와 **Marthi**도 데브나가리 스크립트로 쓰여지며, **Gujarati**와 **Bengali**와 Assamese는 데브나가리의 수정된 형식들로 쓰여진다. 심지어 남부의 **드라비다어**까지도 데브나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형식 하에서 쓰여진다. *Urdu*는 *Persi-Arabic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우르두어**와 고급 힌디(high Hindi)는 다른 고전 전통들에 두개의 토탈적으로 다른 스크립트에 의해 나뉜 그러나 하나의 형식을 지닌 말(speech)(**Hindustani**)에 토대를 둔다고 말해져왔다. 만약 힌두스타니어 라는 이름이 여전히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북쪽의 아랴어로 말하는 자들의 상호지역을 아주 자연스레 연결시켜준다. 이것은 일 종의 인도 링구아(lingua Indica)이다’(S.K.Chatterji, Language and Linguistic Problem, Oxford Pamphlet on Indian Affairs, no. 11, 1943).

Primary vowels

	Short				Long				Diphthongs			
	Initial		Diacritic		Initial		Diacritic		Initial		Diacritic	
Unrounded low central	अ	a	प	pa	आ	ā	पा	pā				
Unrounded high front	इ	i	पि	pi	ई	ī	पी	pī				
Rounded high back	उ	u	पु	pu	ऊ	ū	पू	pū				
Syllabic variant	ऋ	ṛ	पृ	pṛ	ॠ	ṝ	पॄ	pṝ				
Secondary vowels												
Unrounded front					ए	e	पे	pe	ऐ	ai	पै	pai
Rounded back					ओ	o	पो	po	औ	au	पौ	pau

Occlusives

	Voiceless plosives				Voiced plosives				Nasals	
	unaspirated		aspirated		unaspirated		aspirated			
Velar	क	ka	ख	kha	ग	ga	घ	gha	ङ	ṅa
Palatal	च	ca	छ	cha	ज	ja	झ	jha	ञ	ña
Retroflex	ट	ṭa	ठ	ṭha	ड	ḍa	ढ	ḍha	ण	ṇa
Dental	त	ta	थ	tha	द	da	ध	dha	न	na
Labial	प	pa	फ	pha	ब	ba	भ	bha	म	ma

Sonorants and fric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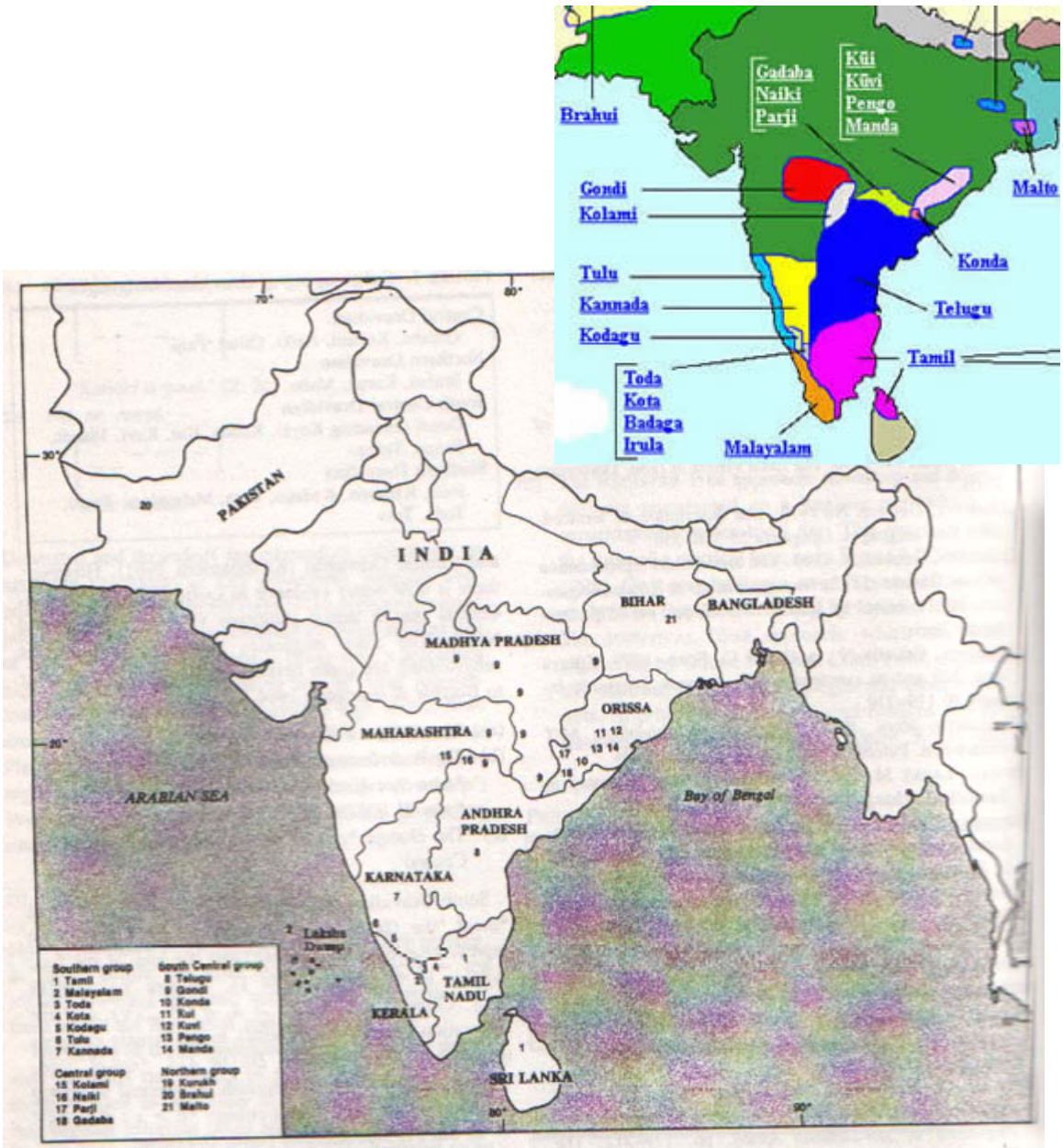
	Palatal		Retroflex		Dental		Labial	
Sonorants	य	ya	र	ra	ल	la	व	va
Sibilants	श	śa	ष	ṣa	स	sa		

Other letters

ह	ha	ळ	ḷa

데브나가리 쓰기법의 알파벳(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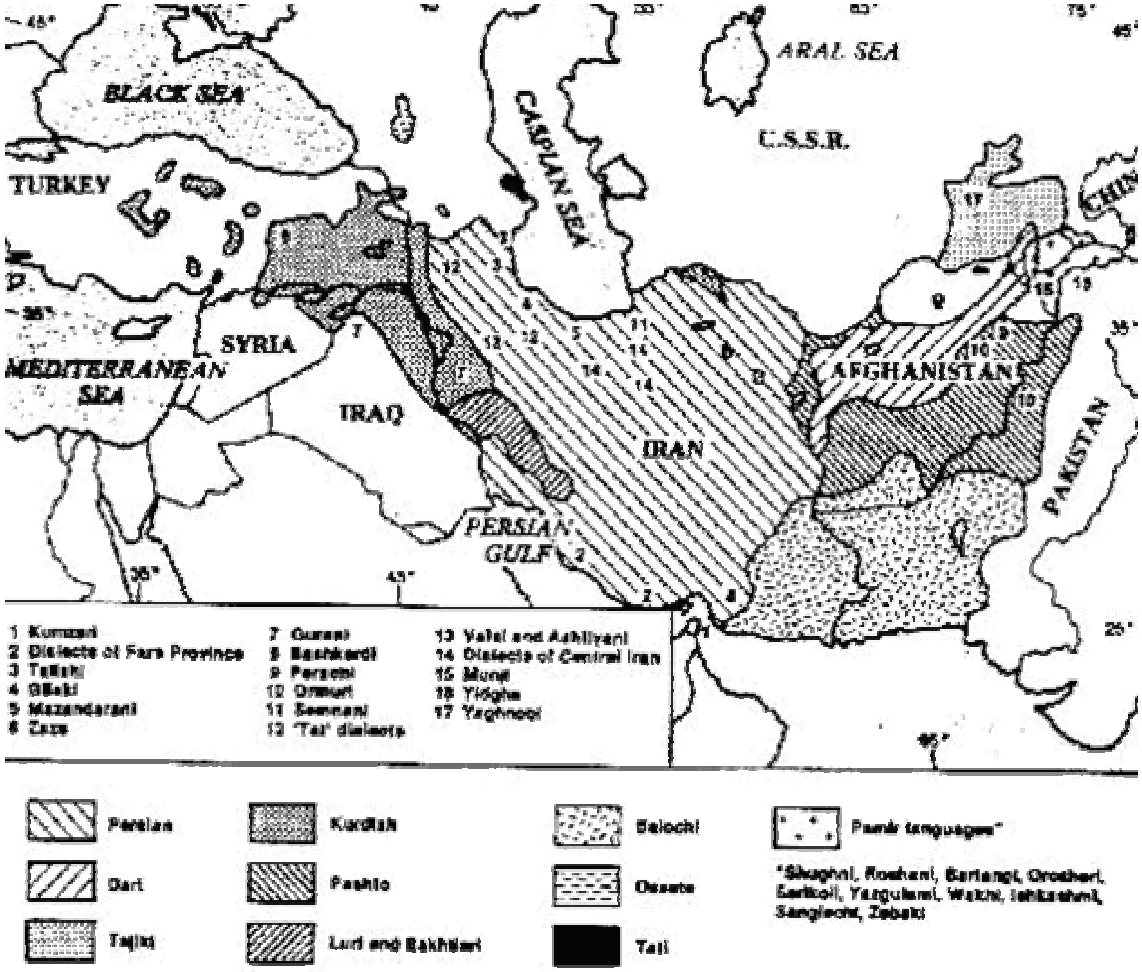
Sanskrit	Avestan	Old Persian	Morden Persian
Sindhu(Indus)	Hindu	Hindu	Hind
Asua Medhās	Ahura Mazdāh	Ahuramazdā	Hurmuzd
bhūmi(earth)	būmi	būmī	būm
kratu(insight)	xratu	...	xirad
hasta-(hand)	zsta-	dasta-	dast
açva-(horse)	aspa-	asa-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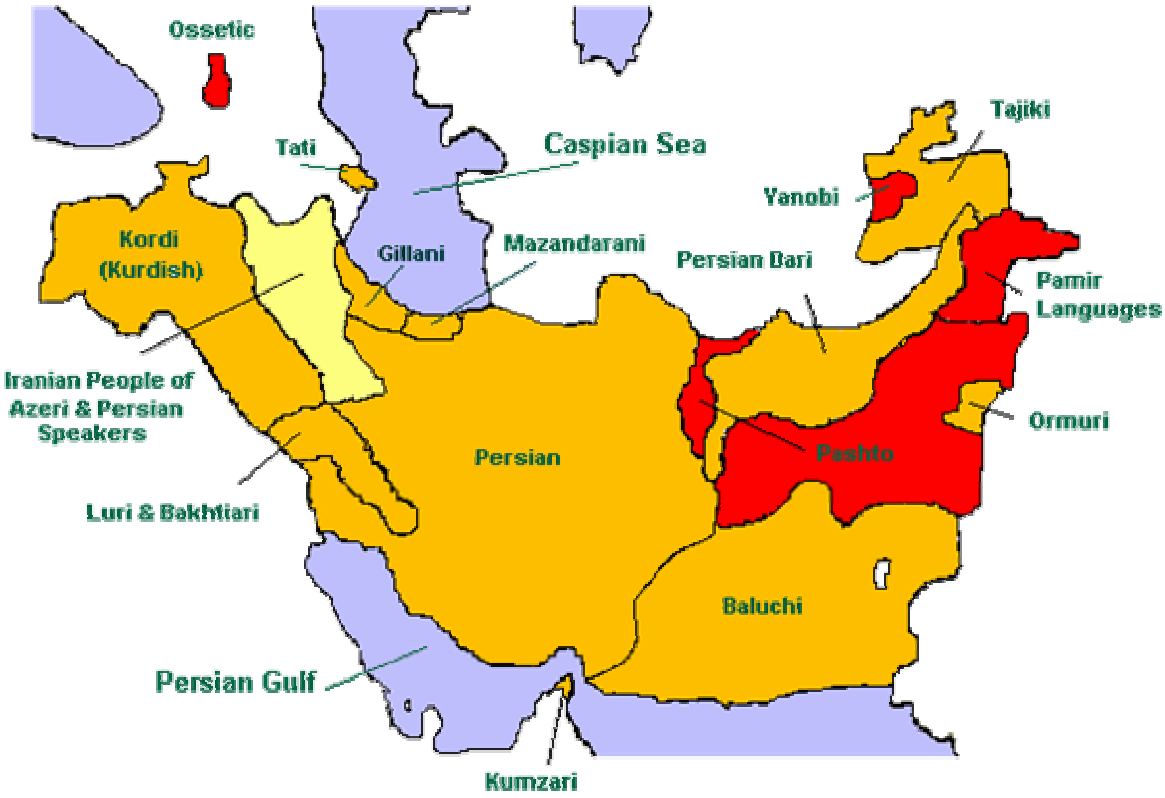
MAP 1. *Distribution of Languages in South Asia*

IRAN
N
ARMENIA
AZERBAIJAN
TURKMENISTAN
TURKEY
CASPIAN SEA
Khvoy
Marand
Tabriz
Ardabil
Orumiyeh
Azarbayjan-E Sharoi
Azarbayjan-E Gharei
Mahabad
Rasht
Gilan
Zanjan
Qazin
Babol
Sari
Mazandaran
Golestan
Gorgan
Bojnurd
Shahrud
Mashhad
Sarakhs
Kordestan
Sanandai
Kara
TEHRAN
Hamadan
Semnan
Kavir-o Namak
Dasht-e Kavir (Salt Desert)
Taybad
Kermanshah
Hamedan
Markazi
Qom
Gonabad
Arak
Kashan
Lorestan
Llam
Khonamabad
Khorasan
IRAQ
AFGHANISTAN
Esfahan
Birjand
Dezful
Shahr-e Kord
Zamin Shahr
Chahar Mahali Va Bakhtari
Yazd
Bafq
Khuzestan
Ahvaz
Zabol
Kohgiluyeh Va Buyer Ahmadi
Yasuj
Kerman
Shiraz
Fars
Sirjan
Bam
Zahedan
KUWAIT
Bushehr
PAKI-STAN
SAUDI ARABIA
Bandar-e Kangan
Hormozgan
Bandar Abbas
Iranshahr
Sistan Va Baluchestan
PERSIAN GULF
Bandar-e Lengeh
Jask
Chabahar
GULF OF OMAN
ARABIAN SEA
International Boundary
Province(Ostan)Boundary
National Capital
Province(Ostan)Capital
Other Cities
Map not to Scale
Copyright © Compare Infobase Pvt. Ltd. 2005.
www.mapsofworld.com

.


BLACK SEA
TURKEY
ARAL SEA
C.S.S.R.
CASPIAN SEA
SYRIA
MEDITERRANEAN SEA
IRAQ
IRAN
AFGHANISTAN
PAKISTAN
PERSIAN GULF
1 Kumzari
2 Dialects of Fars Province
3 Talishi
4 Gilaki
5 Mazandarani
6 Zaza
7 Gurani
8 Bashkardi
9 Parachi
10 Ormuri
11 Semnani
12 'Tati' dialects
13 Vafsi and Ashtiyani
14 Dialects of Central Iran
15 Munji
16 Yidgha
17 Yaghnobi
Persian
Dari
Tajiki
Kurdish
Pashto
Luri and Bakhtiari
Baloch
Ossete
Tati
Pamir languages*
*Shughni, Roshani, Bartangi, Oroshori, Sarikoli, Yazgulami, Wakhi, Ishkashmi, Sanglechi, Zebaki

Iranian Speaking World



Orange: Western-Iranian Languages ●Red: Eastern-Iranian Languages

2)산스끄리뜨어(Sanskrit Language)

산스끄리뜨어는 인도(India)의 힌두(Hindu) 거주자들의 고전어(classical languge, 古典語)이다. 그것의 기록은 기원전 두 번째 천년에 시작하며(아마 기원전 1500 이전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까지 쓰여진다. 모국어 또는 자국어로서 언제 산스끄리뜨어가 말해지기를 그쳤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증거는 정확하지 않다. 가장 초기의 기록들—Vedas와 Brāhmaṇas와 이것들과 결부된 텍스트들—은 의심할것도 없이 최소한도 그것들의 가장 이른 시기동안 말해진(spoken)언어들을 표현해놓은 것들(representatives)이다. 어떤 고정된 연대기도 주어질 수 없다. 베다 기록의 끝을 향하면서 그 텍스트들의 언어는 후에 기원전 5 세기의 문법가 Pāṇiji(빠니니)에 의해 표준화되고 기록된 언어와 유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빠니니 보다 약 한 세기 앞 선 Buddha(붓다)는 자신의 사상들이 Vedic이 아니라 대중적인 토속어로 전파되기를 바랬다고 알려진다. 이것은 산스끄리뜨어가 더 이상 모국어가 아니라 이미 학교 교육 언어였다는 것을 함축한다.

빠니니의 문법은 이런 학교 언어의 최종 규정 놓은 것(codification)이다.

심지어 이런 초기에도 일상 생활에서는 Aśoka의 비문들(기원전 3 세기)과 그리고 Pali와 다른 중기인도아랴어들로 쓰여진 붓디스트 서적들과 그리고 자이나교도 서적들의 Prakrit 언어들과 그리고 보다 후기 드라마들과 문법가들의 Prakrit에서 발견된 것들과도 같은 Middle Indo-Aryan 방언들이 말해졌을 것이다. 중기인도아랴어 경향들은 붓다 시기 보다 훨씬 더 오래라는 것은 베다 텍스트의 가장 오랜 문헌인 Rgveda(Rigveda)에서 이미 발견되는 어떤 문법적인 형식들로부터 보다 선명해진다. 베다 문헌이 작성되어 그 천년의 후반기 동안 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베다 방언 그리고 이 베다 방언을 갈아치운 산스끄리뜨어는 이미 토속어 형식들이 그것에 섞어들었을 학교 언어였다. 산스끄리뜨어가 고향 토속어이기를 언제 그쳤다라고 그 날짜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장될 수 없다.

//산스끄리뜨어는 결국 인도유럽어 군의 한 가지인 인도 이란어의 하위-가지인 인도아랴어(Indo-Aryan Language)의 가장 오래전에 포착된 구성원이다.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Speijer 1886, Delbrück 1888, Whitney 1889, Wackernagel&Debrunner 1896-1930, Macdonnell 1916, Bloch 1834, Burrow 1955를 보라).//

2-1)역사.

Vedic 언어와 Classical Sanskrit는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와 독일어와 슬라브어 등 등의) 유럽어들이 그것의 구성원들인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Old Indo-Aryan의 두 개의 밀접하게 관련된 방언들이다. Indo-Aryan의 가장 가까운 친족어는 Iranian(Persia, Avestan, 등 등)이다. 이 둘이 함께 Aryan 또는 Indo-Iranian이다. 추정된 역사는 아마 기원전 두 번째 천년 전반부 어느 한 시기에 인도이란어로 말하는 자들의 인도아랴어 가지(branch, 분파)가 북서쪽 인도에로 이주해 왔다는 것이다. 그 이주 때 여러 방언들이 말해졌(represented)거나 또는 다른한편으로 갈라지는 방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 내부 동쪽으로 향하는 이주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로부터 주로 결과했을 것이다. 초기 베다 방언은 북서 인도와 Pungab에 그 자리를 잡았다가 베다 시기의 끝 무렵 Ganges 계곡과 겐지즈 남쪽 어떤 지역들이 이미 말(speech)에 있어 아리안화 (aryanized) 됐다 그리고 많은 방언적 다양함의 증거가 있다. 이런 다양함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중기 인도-아랴

어들과 그리고 이런 중기인도아랴어들로부터 파생된 현대인도아랴어들이 솟아 오른다—인도의 Hindī, Bengali, Marathi 등 등과 그리고 Ceylon의 Sinhalese와 그리고 서아시아와 유럽과 나머지 세계의 Gypsi(집시)의 언어들.

빠니니에 의한 산스끄리트어의 표준화 후에 그에 의해 묘사된 고전 형식의 그 언어는 학식있는 Hindus의 모든 저술들에서 사용된다. 이들의 문헌 대부분은 생존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빠니니와 그리고 개략적으로 날짜가 메겨질 수 있는, 생존하고 있는 고전 힌두 문헌의 가장 초기의 텍스트들 즉 Kālidsa의 시들과 연극들(아마 기원후 4-5세기) 사이에는 긴 간격이 있다. 그 차이는 부분적으로 문법가들 Kātyāyana와 Patañjali에 의해 그리고 그의 시들이 Kālidāsa의 그것들과 동일한 스타일적 전통안에 있는 그리고 아마 기원후 1 세기 무렵에 속할 그 붓디스트 권위 Aśvaghoṣa에 의해 메꾸어진다. Bhāsa의 연글들을 Kālidāsa 보다 더 이른 시기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생존하고 있는 다른 부류의 저술은 빠니니와 깔리다사 사이의 시기로부터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이른 것이라고 단정지어질 수 없다. Kauṭilīya Artha Śāstra 라고 불리우는 정치술에 관한 저술이 진짜 Chandragupta Maurya(기원전 4세기 말엽)에게 보내는 사절단(minister)의 저작이라는 것이 많이 논의됐으나, 그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공식적인 비문들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의도를 위해서는 **Prakrit**가 수 세기 동안 공통으로 사용됐다. 기원전 4 세기 즈음에 이러한 쓰임새들에 있어서 마침내 **Sanskrit**에 의해 일반적으로 갈아치워(교대)질때까지 말이다. 산스끄리뜨어로 알려진 가장 초기의 비문(inscription, 碑文)은 기원후 150 년 가량까지 날짜가 매겨진다. 텍스트비평 방법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을 텍스트 형식을 지닌 Mahābhārata와 Rāmāyaṇa 라는 두 서사시는 아마 예수님 이후 첫 세기들에 아마 속할 것이다. 이들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빠니니의 그것이다. 빠니니 규범들과의 다름은 아마 이런 저서들이 학교에서 실천된 오럴 시(oral poetry, 구전, 口傳되어오는 시)의 전통으로부터 그리고 빠니니주의자들과 고전전통에 의해 대표되는 것들과는 다소 다른 일련의 전달 [방식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빠니니의 **Sanskrit**는 기원후 첫 천년에 식민지 확장에 의해 특히 인도네시아와 남동 아시아(Campa, Cambodia, Siam) 등 인도 외부로 전해졌다. 어떤 붓디스트 교리학교들에 의해 사용된 산스끄리뜨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전달됐다. 그러나 불교도들은 인도로부터의 자신들의 확장에 있어 중기인도아랴어들을 특히 Ceylon과 남동아시아에 있어서의 Pali를 더 공통으로 사용했다. Kushan 제국의 정

치적인 확자은 **Prakrit**를 거기에서 공식언어로 전했다.

//가장 오랜 것으로 알려진 인도아랴어 텍스트들인 Vedas는 Vedic 이라고 불리우는 Sanskrit의 시원적인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장 오래된 베다들인 Ṛgveda는 기원전 두 번째 밀레니엄 중반까지 그 날짜가 매겨지며 그리고 인도 아대륙(subcontinent, 亞大陸)의 북서 지역에서 대부분 작성됐다. 이어, 인도-아랴인들이 그 아대륙 내에서 동쪽과 남쪽으로 움직인 결과 후기 Vedic 텍스트들은 이들 지역들에서 생산됐다. 이러한 후기 베다 기간은 기원전 첫 번째 밀레니엄 중반까지 계속됐다.

모든 개연성에서 볼 때, *이 시기에 글쓰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종교적인 제의의 텍스트들은 인도의 많은 부분들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비상하게 정확한 구전(oral, 口傳) 전통에 의해 보존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Ṛgveda까지 거술러 올라가는 방언적인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언들은 다른 지역들로 움직여간 인도-아랴인들만큼 증가됐다. 그러한 이주와 더불어, 베다 텍스트 전통의 가지들과 하위-가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구전적으로(말로) 전달된 베다 텍스트들은 지각될수없을 만큼의 미세한 연속저인 변경들을 겪었다. Ṛigveda에 다른 것들—Atharvaveda와 Yajurveda와 Sāmaveda—이 다양한 최근의(recensions)것들로 이어졌다. 이런 텍스트들은 대부분 베다 신들에 대한 기도들과 제의적인 형식과 저주와 주문들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인도 전통에서 **mantra** 라는 단어에 의해 지시된다. 이것들에 이어 산문적인 작품들, 자연스레 **Brāhmaṇas** 라고 불리우는 주석과 해석 그리고 **Upaniṣad** 라고 알려진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텍스트틀이 대부분 잇따른다. 이런 텍스트들 사이의 연대적인 구분들은 날카롭지 않다. 그리고 몇 몇 중복들도 있다. 그러나 초기 베다 텍스트들의 언어는 선명하게 후기 베다 산문의 그것과 구분된다. 심지어 초기 베다 텍스트에조차, 후에 *Prakrits* 라고 불리우는 토속어의 흔적들이 있다. 그러나 *Sanskrit*의 어떤 형식이 베다 시인들의 첫 언어였다는 것은 공정하게 선명하다.

자신의 역사를 두루통해 산스끄리뜨는 자신이 접촉하게 된 언어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결국 그런 언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가장 초기의 베다 텍스트들조차 음성학과 구문론과 사전에 있어서 비-아랴어들과의 접합점(congergence, 接合點)을 보여준다. 초기 국면에서는 단지 사소한 것이었지만, 이런 접합점의 가리킴은 보다 후의 세기들에 있어 점 점 더 많아졌다. 두 번째 언어로서의 산스끄리뜨어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언어—Prakrits 또는 중기인도아랴어와

같은 그런 인도아랴어 토속어였든, 남쪽 인도의 Dravidian 언어들과 같은 비-아랴어(non-IA tongues)들이었든—의 화자들에 의해 실체적으로 영향을 입었다. 동시에 엘레뜨 언어로서의 산스끄리뜨는 인도아랴어 토속어와 비인도아랴어토속어 양자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문어적인 토속어들은 사실 이런 언어들의 산스끄리뜨어화된 다야함들이었다. 산스끄리뜨의 토속어화와 토속어의 산스뜨리뜨어화는 인도 언어역사에서는 동시적인 과정이었으며 그리고 실체적으로 이런 언어들의 각기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다. 학자의 봉헌된 정교한 전통은 산스끄리뜨의 형태론적 구조에 어떤 고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더 치밀한 음미는 음성학과 구문론과 사전에 있어 실체적인 변화를 드러낸다.

기원전 첫번째 밀레니엄 중반은 소위 **Classical Sanskrit** 라고 불리우는 것에로의 일반적인 전이를 표시한다. 후기 베다 산문 언어와 다소 흡사한 그 고전언어는 첫 번째 언어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천천히 잃어가다가, 의례(ritual, 儀禮)실습과 문법 연구등을 통해 획득되는 종교와 교육을 위해 중요한 두 번째 언어로 됐다. 이때까지 구전으로(오럴로, orally) 보존되고 암송되던 베다 찬양시들의 언어는 부분적으로 비지성적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의 올바른 발음과 파악은 진지한 연구를 요구하게 됐다. 이것은 결국 음성학적인 분석과 어원론적인 연구와 현란한 암송기교와 일반적인 주석노력들의 돌출로 이끌었다. 이것으로부터 산스끄리 문법 전통이 발전했다. Aṣṭādhyāyī '여럽 장으로된 문법' 이라는 가장 오래 생존하고 있는 문법은 기원전 500 년 경 그 아대륙(subcontinet, 亞大陸)의 북서 모퉁이에 살았던 Pāṇini 탓으로 돌려진다. 그것은 베다 텍스트들이 입으로 보존되고 연구됐던 상황과 그리고 일상어적인 산스끄리뜨의 한 형식이 거의-자국어처럼 유창하고 폭넓게 사용됐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은 몇세기 후에 Prakrits로서 충분하게 포착된 토속어의 존재를 암시한다. 산스크리뜨어가 빠니니의 모국어(mother-tongue, 母國語)였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공통체들에 의해 삶의 다양한 발걸음으로 폭 넓게 사용됐으며 그리고 사제 계급 또는 의례적인 맥락에 한정되지 않았다. 보다 후의 세기의 산스끄리뜨의 사회-언어학은 변하고 있었다. 결국 산스끄리뜨는 화석화된고전 언어, 곧 높은 사회적 특권을 지닌, 일반적으로 의례적이고 엘리뜨적인 교육적인 두 번째 언어로 됐다.

인도에서 가장 초기의 읽을 수 있는 비문들인, 기원전 3 세기 Aśoka 왕의 비문들은 **산스끄리뜨**가 아니라 **쁘라끄리뜨**이다. 어떤 중요함을 지닌 가장 초기에 알려진 산스끄리뜨 비문은 기원후 2 세기 Śaka(Scythian) 지배자 Rudradāman으로

부터 온다. 고대에 산스끄리뜨의 정치적인 후원자는 서쪽 인도의 외래적인(foreign, 外國)지배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기록할만한 중요한 것이다. 산스끄리뜨어는 Guptas와 '새' Kṣatriyas에 의해 공식언어로서의 지위가 주어졌다. 그것은 이런 지배자들에 의해, Śakas가 했던 것처럼, 그들자신들을 지역 사회로 합체시키는 수단으로서 또는 그렇지않다면(else)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서 사용됐다. 결국 산스끄리뜨어는 나머지 기원후 첫 번째 밀레니엄을 통해 비문들의 우월한 언어가 됐다. 그것은 시인들과 철학자들과 행정관들에 의해 사용됐으며 그리고 의학과 수학으로부터 궁술(archery, 弓術)과 애정소설(erotica)에 이르는 기교문학의 언어였다. 고전언어가 빠니니에 의해 주어진 기술(description, 記述)을 따르는 동안 다양한 정도에서 빠니니의 기술과 차이나는 많은 산스끄리뜨 방언들은 불교도와 쟈이나교 텍스트들과 비문들과 후기 대중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위대한 서사시 Mahābhārata와 Rāmāyaṇa에서 보여진다. 이런 다양한 방언들은 Epic Sanskrit와 Buddhist Hybrid Sanskrit와 Inscripitional Hybrid Sanskrit와 Vernacular Sanskrit와 심지어 Dog Sanskrit와 같은 그러한 용어들에 의해서 자주 기술된다. 엘리트 학자적인 전통은 일반적으로 빠니니의 문법에 들러붙었다. 그리고 고전 산스끄리뜨는 오늘 날[1992년]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두 번째 언어로서 계속 전통적인 힌두 학원들에서 말해지며 글로쓰여진다. 그것은 인도 헌법에 의해 국가 언어들 중의 하나로서 인정돼왔다. 그것은 제한된 범위에서 새로운 문학활동을 위해 그리고 심지어 All India Radio에 의한 일상뉴스방송을 위해 사원과 가정의례에서 폭 넓게 사용된다. 산스끄리뜨에 관한 앎은 인도 아대륙의 언어학적인 종교학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인 역사를 위해 본질적이다. 언어학 분야에서, 서구에서의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 분야 발전으로 이끌고 간 것은 18 세기 William Jones 경과 다른 사람들에 의한 '산스끄리뜨의 발견'이었다. //

2-1-1)빠니니의 문법(The Grammar of Pāṇini).

"여덟 장으로 된 그 저작", Aṣṭādhyāyī 라고 불리우는 이 문법은 음성학과 형태학적인 분석에 있어서의 오랜 전통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여태까지 글로 쓰여진 가장 좋은 문법이라고 판단 돼 왔다. 그것이 제시하는 산스끄리뜨의 분석은 그 이후로 인도에서는 결코 도전받거나 또는 재 검증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더 늦은 인도 문법서들은 단지 자신들이 더

축약적으로 그리고 복잡하게 정돈되지 않는 정도에서 단지 그것의 진술들을 재정리하려고 시도했을 뿐이다. 그 언어의 음성학적인 기술을 위해 보다 초기의 작품들(Veda들의 Trātiśākhyas)에 의존하면서, 빠니니 자신은 그러한 음성학적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일련의 음소들을 다룬다. 이런 음소들과 더불어 그는 근본적인 형식들의 형태소들을 진술하며, 그리고 이런 형태소들로부터 형태음소학적인 진술들을 수단으로 하여 그 형태소들의 다양한 이음(allomorphs, 異音 또는 이형 異形)들을 이끌어낸다. 이음[또는 이형]들을 근거로하여 그는 문장에 까지 이르는 언어의 형식들을 진술한다. 형태론(morphology, 形態論)은 세부적으로 진술되는 반면 구문론은 덜 복잡하게 진술된다. 기술의 이런 유형에는 현대언어학에서 “item and process”(항목과 과정)적인 진술 이라는 명칭이 주어진다. 음성학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언어를 위해 그것은 비록 여전히 복잡하긴 해도 아주 명쾌한 진술들을 생산한다. 산스끄리뜨의 모든 현대 문법들은 본질적으로 학생의 임무를 쉽게하기 위해 덧 붙혀진 범형들과 더불어, 빠니니 문법의 번역과 채용(adaptation, 應用)에 근거한다.

서구 세계에서의 현대 언어학적 연구들에게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고대 방법들에 의해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켜진 산스끄리뜨의 그 발견이었다. William Jones 경은 1786년에 인도에서의 산스끄리뜨의 연구에 의해 인도-유럽어군을 인식하는 데로 이끌렸다. 이것으로부터 19 세기에는 인도-유럽어 비교 문법이 발전했다. 힌두 문법의 음성학적인 부분은 서구 음성학자들을 정확하게 관찰하도록 이끌어갔다. 빠니니에게서 보여진 문법적인 분석의 그 방법과 스타일은 Otto von Böhilingk, William Dwight Whitney, 그리고 Leonard Bloomfield와 같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 서구에로 흡수됐으며 마침내 언어학에서의 현대적인 기술(descriptive, 記述)적 방법으로 이끈다.

2-2)글쓰기 체계(Writing System).

인도아랴어-이전 **인더스 계곡 문명의 글쓰기 체계의 손실**(loss, 損失)이후에 인도에로 글쓰기가 다시 언제 도입됐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추측컨데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 사이가 아닐까한다. *베다 시기에는 초기 문법가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없었다.* Pāṇini는 글쓰기에 관해 알았으나 그 글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최소한도 그 중의 하나는 Achaemenides의 페르시아 제국과 상호교섭을 통해서 도입된, 두 가지 형식들의 셈어 글쓰기가 인도에로 도입됐다. 이것들 중의 하나인 *Kharoṣṭhī*는 북서부 인도에서 기원후 5 세기까지 사용

됐다. 다른 하나인 Brāhmī는 산스끄리뜨가 보통 그 글로 쓰여지고 현재 인쇄되는 다음 22 쪽 표에서 예시된 Devanāgarī를 포함한 모든 후기 인도 알파벳들의 재원이었다.

원래 글쓰기는 주로 사업과 행정 용으로 사용됐던 것처럼 보인다. 문학적인 의도로 그것이 사용된 것은 단지 오히려 늦은 아마 기원후 마지막 수 세기 경일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진 Aśoka 비문들의 글쓰기는 이미 셈어 재원으로부터의 차용(借用) 행위(borrowings)들이 문법가들에 의해 두루 행해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산스끄리뜨의 문법가들에게서 발견된 음소학적인 체계에 그 셈어 재원이 채용됐다. 이것은 셈어 글쓰기 체계들 일반에 있어서의 주목할만한 진보이나, 셈어적인 기원의 흔적은 여전히 Devanāgarī에서 보여진다. 셈어 알파벳들은 보통 모음들을 글로 쓰지 않았다. 그런데 데브나가리는 모음들을 글로 쓴다. 그러나 단지 자음들의 부속물처럼 그렇게한다. 그리고 가장 공통인 모음인 ***짧은 a****는 글로 쓰여지지 않지만 그 자음글자 안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히려 이러한 체계는 사실 엄밀한 알파벳적이라기 보다는 음절적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각기 다른 알려진 글쓰기 체계를 능가했으리라.

// 그 역사의 과정에서 산스끄리뜨는 많은 다른 스크립트(Script, 쓰기법)들의 글로 쓰였다. 그렇지만 정교한 음성학과 문법 전통은 글쓰기의 출현 날짜에 앞서며 그리고 구어(oral, 口語)를 분석한다. 산스끄리뜨어를 위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크립트는 예를들어 Hindi와 같은 현대의 몇 몇 인도 아랴어들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Devanāgarī이다. 데브나가리는, 자음 부호가 쓰여진 음절의 핵심을 형성하는, 글쓰기의 '알파-음절적인'(alpha-syllabic)형식이다. 자음 뒤에서 발음되는 *모음들은 모든 자음 부호(sign符號) 안에 내재 해 있는 짧은 a를 제외하면 부가된 기호(symbols, 記號)들처럼 가리켜진다. 모음들은 단지 낱말-맨앞에서만 독립된 철자들로 가리켜진다.* 산스끄리뜨 글쓰기의 조직화는 기원전 1 세기 중반까지 그 날짜가 거슬러 올라가는 음성학적인 분석의 고도로 현란한 수준을 보여준다. 데브나가리 쓰기법의 형식들은 아래 표 1a~c에서 보여진다.

TABLE 1a. *Traditional Order of Sanskrit Vowels*

Independent Forms		Forms attached to क k	
Symbol	Transcription	Symbol	Transcription
अ	a	क	ka
आ	ā	का	kā
इ	i	कि	ki
ई	ī	की	kī
उ	u	कु	ku
ऊ	ū	कू	kū
ऋ	ṛ	कृ	kṛ
ॠ	ṝ	कॄ	kṝ
ऌ	ḷ	कॢ	kḷ
ए	e	के	ke
ऐ	ai	कै	kai
ओ	o	को	ko
औ	au	कौ	kau
Voiceless breath (visarga):		अः ḥ	
Nasalization (anusvāra):		अं ṃ	

TABLE 1b. *Traditional Order of Sanskrit Consonants (Initial Forms)*

	Occlusives				Nasals
	Voiceless		Voiced		
	Unaspirated	Aspirated	Unaspirated	Aspirated	
Velar	क k	ख kh	ग g	घ gh	ङ ṅ
Palatal	च c	छ ch	ज j	झ jh	ञ ñ
Retroflex	ट ṭ	ठ ṭh	ड ḍ	ढ ḍh	ण ṇ
Dental	त t	थ th	द d	ध dh	न n
Labial	प p	फ ph	ब b	भ bh	म m
Resonants:	य y	र r	ल l	व v	
Spirants:	श ś	ष ṣ	स s	ह h	

TABLE 1c. *Devanāgarī Consonant Clusters*. When a consonant is followed by another consonant, rather than by a vowel, 'conjunct' symbols are used, as illustrated here.

	Second consonant		
	त t	प p	र r
First consonant:			
त t	त्त tt	त्प tp	त्र tr
प p	प्त pt	प्प pp	प्र pr
र r	र्त rt	र्प rp	----

아래 '1)'은 표준 로마 필사체(transcription, 筆寫體)를 나란히 지니는 데브나가리로 인쇄된 산스끄리뜨 텍스트을 제공한다.

(1) आसीद् राजा नलो नाम वीरसेनसुतो बली ।
उपपन्नो गुणैरिष्टै रूपवानश्वकोविदः ।।

āsīd rājā nalo nāma vīrasenasuto balī
upapanno guṇair iṣṭai rūpavāna śvakovidaḥ

'There was a powerful king named Nala, the son of Vīrasena.
He was endowed with all desirable virtues, was handsome, and was expert in dealing with horses.'

VOWELS		
SIGN		EQUIV-ALENT
INITIAL	MEDIAL	
ऋ	ृ	a
अ		
आ	ा	ā
इ	ि	i
ई	ी	ī
उ	ु	u
ऊ	ू	ū
ऋ	ृ	ṛ
ॠ	ॄ	ṝ
ऌ	ॢ	ḷ
DIPHTHONGS		
ए	े	ē
ऐ	ै	āi
ओ	ो	ō
औ	ौ	āu

CONSONANTS			
SIGN	EQUIV-ALENT	SIGN	EQUIV-ALENT
VELARS		**LABIALS**	
क	k	प	p
ख	kh	फ	ph
ग	g	ब	b
घ	gh	भ	bh
ङ	ṅ	म	m
PALATALS		**SEMIVOWELS**	
च	c	य	y
छ	ch	र	r
ज	j	ल	l
झ (or झ)	jh	व	v
ञ	ñ		
RETROFLEXES		**SIBILANTS**	
ट	ṭ	श	ś
ठ	ṭh	ष	ṣ
ड	ḍ	स	s
ढ	ḍh		
ण	ṇ	**ASPIRATES**	
ळ	ḷ	ह	h
DENTALS		:	ḥ
त	t		
थ	th		
द	d	**NASALIZED VOWEL**	
ध	dh	ं	ṃ (or ṁ)
न	n		

FROM A. A. MACDONELL, "SANSKRIT GRAMMAR FOR STUDENTS," CLARENDON PRESS

SANSKRIT ALPHABET (DEVANĀGARĪ SCRIPT)

Occlusives

	Voiceless plosives				Voiced plosives				Nasals	
	unaspirated		aspirated		unaspirated		aspirated			
Velar	क	ka	ख	kha	ग	ga	घ	gha	ङ	ṅa
Palatal	च	ca	छ	cha	ज	ja	झ	jha	ञ	ña
Retroflex	ट	ṭa	ठ	ṭha	ड	ḍa	ढ	ḍha	ण	ṇa
Dental	त	ta	थ	tha	द	da	ध	dha	न	na
Labial	प	pa	फ	pha	ब	ba	भ	bha	म	ma

Sonorants and fricatives

	Palatal		Retroflex		Dental		Labial	
Sonorants	य	ya	र	ra	ल	la	व	va
Sibilants	श	śa	ष	ṣa	स	sa		

Other letters

ह	ha	ळ	ḷa

Primary vowels

	Short				Long				Diphthongs			
	Initial		Diacritic		Initial		Diacritic		Initial		Diacritic	
Unrounded low central	अ	a	प	pa	आ	ā	पा	pā				
Unrounded high front	इ	i	पि	pi	ई	ī	पी	pī				
Rounded high back	उ	u	पु	pu	ऊ	ū	पू	pū				
Syllabic variant	ऋ	ṛ	पृ	pṛ	ॠ	ṝ	पॄ	pṝ				
Secondary vowels												
Unrounded front					ए	e	पे	pe	ऐ	ai	पै	pai
Rounded back					ओ	o	पो	po	औ	au	पौ	pau

2-3)음성학

2-3-1)음소(Phonemes.)

2-3-1-1)모음들.

모음들은 a, ā, i, ī, u, ū, ṛ, ṝ, ḷ이며, 이중모음들은 ē, ō, āi, āu이다. ṛ와 ṝ와 ḷ은 (짧은 그리고 긴) 음절적인 떨림 음(trills)들이며 음절적인 유음(liquid, 流音)이다. 알파벳은 마찬가지로 긴 음절적인 유음(l̥)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균형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짧은" 이중모음 ē와 ō는 음성학적으로 긴 모음처럼 발음된다. 그러나 형태음소학적으로 ai(ay)와 au(av)와 같다. "긴" 이중모음들이 āi(āy)와 āu(āv)인 것처럼 말이다.

2-3-1-2)자음들.

일련의 다섯 폐쇄음들과 비음(nasal, 鼻音)들이 있다: 연구개음(k, kh, g, gh, ṅ)과 경구개음(c, ch, j, jh, ñ)과 달리 설배음(cerebral, 舌背音) 또는 Domal 또는 반전음(retroflex, 反轉音) 또는 설음(lingual, 舌音)이라고도 불리우는 반전음(Retroflex, 反轉音: ṭ, ṭh, ḍ, bh, ṇ, l)과 치음(t, th, d, dh, n)과 순음(labial, 脣音: p, ph, b, bh, m). h와 함께 글로 쓰여지는 연결들은 각 각 무성 기식 폐쇄음들(예를들어 kh)과 유성 기식 폐쇄음들(예를들어 gh)이다. *반모음*들은 y, r, l, v이다. 치찰음(Siblants, 齒擦音)들은 경구개음 ś(오래된 스타일로 필사하면 ç), 반전음 ṣ, 그리고 치음 s. 기식(Aspirates, 氣息)들은 유성음h, 무성음ḥ(visarga로 불리운다). 모음의 비음화(또는 그것이 폐쇄음일 때 잇따르는 자음의 위치에서의 선택적인 비음)는 ṃ이다.

//2-3-2)음성학.

산스끄리트 소리 체계는 열 세개의 모음들을 지닌다; a i u ṛ ḷ은 짧으며, ā ī ū ṝ e o ai au는 길다. 마지막 둘은 이중모음이며 나머지 것들은 단모음들이다. 이런 대부분의 모음들의 여분(extra, 餘分)의-긴 다양함들(pluta)은 종 종 호격 등에서 발견된다. ē ī ȳ v̄와 같은 소리들을 산출하는, 모음들과 반모음들의 비음화에 관해 정교한 문법가들은 말한다. 이것들은 이음(allophones, 異音)로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동일한 것이 여분의-긴 모음들에 관해 진실이다.

다음 쪽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산스끄리뜨어는 서른-세-개의 자음들을 지닌다. 덧붙혀, 고대 음성학적인 고찰들은 이런 몇 몇 소리들의 정확한 본성에 관한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다양함들을 기록하고 있다—예를들어, ṃ(anusvāra)

TABLE 2. *Sanskrit Consonants*

	Labial	Dental	Retroflex	Palatal	Velar	Glottal
Occlusives						
Voiceless						
Plain	p	t	ṭ	c	k	
Aspirated	ph	th	ṭh	ch	kh	
Voiced						
Plain	b	d	ḍ	j	g	
Aspirated	bh	dh	ḍh	jh	gh	
Fricatives						
Voiceless		s	ṣ	ś		
Voiced						h
Nasals	m	n	ṇ	ñ	ṅ	
Vibrant			r			
Liquid		l				
Approximants	v			y		

이 모음인지 또는 자음인지(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치찰음 ūṣman으로 간주한다). 현대 언어학은 때로 ṅ ñ ḥ ṃ 소리들이 독립적인 음소들보다는 오히려 이음들로 간주되느냐의 여부를 묻곤한다.

일련(in each series, 一連)의 자음체계는 유성음과 무성음 양자의 기식 폐쇄음과 무기식(unaspirated, 無氣息) 폐쇄음의 대립에 의해서 표시된다. 어떤 자음들은 그 사용에 있어 제한된다. 예를들어 **ñ**은 경구개(palatals, 硬口蓋)음들 앞 또는 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ṅ**은 마지막에서 또는 단지 (바로 이어 손실되버릴) 후음들 앞에서만 나타난다. 소리 h와 ś는 낱말-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k ṭ t p ṅ n m ḥ만이 문장의 끝에서 발생한다. 인도-유럽어에 기원을 두지 않는 (예를들어 jh 같은) 어떤 소리들은 Prakrits 또는 비-인도유럽어에서 차용된 의성어저인 표현들과 낱말들에서 발생한다.

반전 또는 설배 자음들은 산스끄리뜨의 주요한 새로움을 구성한다. 이런 소리들의 기원은 뜨겁운 토론거리이다. 설명들은 인도아랴어 내부 발전이라는 것부터 Dravidian과/또는 따른 비-인도아랴어들로부터 빌려와진 것이라는 것까지 다양하다. 양자의 영향이 함께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자음들의 발음은 그것들이 어떤 단어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어 y와 v는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보다는 맨 첫 머리에 있을 때 보다 더 강하게(strongly) 발음된다.

모음들은 인도유럽어로부터 산스끄리뜨어로 발전하면서 크게 변경된다. 그래서

열 두 개의 인도유럽어 모음들 *ei *oi *ai *ei *ou *au *ēi *ōi *āi *ēu *ōu *āu은 인도-이란어 이중모음 4 개 *ai *au *āi *āu로 줄어들었다. 이것들 중에서 *ai *au는 산스끄리뜨어 단모음 e o로 되는 반면 *āi *āu는 산스끄리뜨어 ai au가 된다.

2-3-3)엑센트

빠니니의 말해진(spoken, 구어적인) 산스끄리뜨어처럼, 베다 텍스트들의 고대 산스끄리뜨어는 살아있는 엑센트를 지닌다: 문법가들은 udātta 'raised'와 anudātta 'unraised'와 svarita 'rising-falling' 엑센트 사이를 구분한다. 이것들 중에서 udātta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우선적인 인도유럽어 단어-엑센트와 일치한다. 엑센트들은 후고 고전언어에서 상실됐으나, 베다 스크립트의 암송에서는 보존된다. //

어떤 베다 텍스트들에서는 엑센트가 표시된다. 빠니니의 문법은 엑센트 규칙을 제공한다. 이것은 문장 내에서의 어떤 음절들이 다른 것보다 더 높은 높이(pitch)를 지니는 피치 또는 가락(tone) 엑센트였다. 이런 엑센트는 그것의 위치가 기계적으로 예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음소적이다. 그 위치 규칙은 부분적으로 형태론에서 부분적으로 사전에서 진술된다. 산스끄리뜨 글쓰기의 고전 시기에서의 그 피치(pitch, 높낮이) 엑센트는 무시됐으며 그리고 기계적으로 고정된 강세(stress) 엑센트(accent)에 의한 발음으로 교체된다. 모든 시기의 산스끄리뜨 시(poetry, 詩)는 음절의 길이들에 또는 음절 계산에 또는 이 두 원리의 연결에 의존한다. 높낮이든 강세든 엑센트는 전적으로 운문(verse, 韻文) 구성에서 무시됐다.

2-3-4)음소들의 분포와 형태음소학(Distribution of Phonemes and Morphophonemics).

경구개 비음 **ñ**은 단지 연구개 폐쇄음 앞과 뒤에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음소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연구개 비음 **ṅ**은 거의 연구개 폐쇄음들 앞으로 제한되지만 하나의 음소이다. 그것은 그러한 위치에서의 잇따르는 연구개 폐쇄음의 형태음소학적 손실 후에 낱말들의 끝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음소들의 분포 일반은 많은 제한들을 보여준다. 긴 자음 집단(clusters)들은 모음들 사이에서 다섯 또는 여섯 자음들까지 발생한다. 낱말 첫 머리에는 보다 더 짧은 집단들이 있다. 문장 안에서의 *마지막 위치에서의 낱말은 단지 k, ṅ, t, ṇ, t, n, p, m, 또는 ḥ일 수 있는 자음들 하나로만 끝난다.* 문장 내에서의 낱말은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음들 또는 심지어 두 자음들이 집단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여

전히 많은 제한들이 있다. 자음 집단들의 구성에 있어 발견되는 중요한 제한들 중의 하나는 연해있는 폐쇄음들이 반드시 모두 유성음이든지 아니며 모두(both) 무성음이든지 해야만 한다. 다른 제한은 폐쇄음들의 한 집단은 그 집단의 유일한 마지막에 기식화된 폐쇄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제한은 (몇 몇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단지 기식화된 폐쇄음 하나만이 음절 하나에 발생 할 수 있어야 할 것과 그리고 연이어지는 음절들 중 단지 하나만이 기식화된 폐쇄음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한의 진술을 위해서 h는 기식화된 폐쇄음으로 분류된다. 경구개 폐쇄음과 치찰음은 그 발생에 있어 아주 많이 제한된다. 어떤 낱말의 마지막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폐쇄음에 잇따르는 등 말이다.

형태소들은 근본 형들로 진술되므로—즉 형태소 하나의 이형(allomorph, 異形) 하나가 근본인 것으로 주어진다—훨씬 더 복잡해진 형태음소학적인 진술이 음소들의 발생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한들을 보여주는 형식들의 분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저이다. 사실 많은 형태소들은 수많은 이형들을 지닌다. 그리고 이 이형들 모두는 결국 근본적인 형태소들에서의 자음소들의 거의 무제한적인 분포를 발설되는 것으로서의 현실적인 형식에서의 훨씬 더 심하게 제한되는 분포에 관계시키는 형태음소적인 진술들에 의한 근본적인 형태소들에 관계된다. 예를들어 vac- “to say”는 다른 이형들 vak-, vag를 지닌다; 거기에서 그러한 형식들은 vacimi “l say”, vakti “ he says”, vakṣyati “he will say”, vagdhi “say!”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문법가들은 모음들 사이에서의 또는 모음들과 다양한 반모음들과 모음들의 다양한 연결들 사이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형태음소적인 관계들을 인식했다. 이것들은 uc-, uk- vāc-, vāk-와 같은 그런 vac의 더 나아간 이형들에 의해서 예화된다. 예를들어 uvāca “he said”, (배가하는 접미적인 모음 u를 지니는 uc-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분석되는)ūchḥ “they said”, ucyatē “it is said”, uktam “that Which was said”, vāk or vākyam “speech”. 이러한 예들이 그 기술에 있어서의 형태음소학의 아주 복잡한 류형들을 결코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 모음관계들은 문법가들에 의해서 설명된 형태음소적인 진술들의 아주 흥미로운 것일 것이다. 사실 관계된 언어들들에 관한 앎이 없이 산스끄리뜨어 그 자체안에서만 어떠 문법가가 진행할 수 있는 한, 문법가들은 인도-유럽어 비교문법에서 발견된, (영어에서의 “sing”, “sang”, “sung”, “song”에서처럼 체계적으로 다양한)모음교체(ablaut) 관계들을 향한 길고 긴 길을 간다. 그 진술들의 한 예는 a, i, u

와 ṛ는 소위 guṇa라는 길에서 a, ē(=ay) 또는 ya, ō(=av) 또는 va, ar 또는 ra에 각 각 관계되며 그리고 소위 vṛddhi 라는 길에서는 ā, āi (=āy) 또는 yā, āu (=āv) 또는 vā, ār 또는 rā에 각 각 관련된다. u, vā, āu 관계들은 위에서 주어진 vac- 이형들에서 보여진다. 하나의 형태소가 ō 또는 va(ē 또는 ya, 등)인지는 각 형태소 마다 반드 진술되야만 한다. 힌두(Hindu)문법가들은 여기에서 함축된 것과는 다소 다른 특별한 길에서 그것을 진술했다.

모음에 관한 형태음소학의 이 부분은 형태학의 기술에 있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약간 단순화를 지니는) 예는 동사 미래 류형들 중의 하나의 기술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형태소의 guṇa와 접미사 –sya-로서 기술된다. 예를들어,

i- “to go”: ē-ṣya-ti “he will go” (ṣ는 형태음소학적인 진술에 의한 미래 접미사의 근본형식에서 s에 관계된다;
duh- “to milk”: dhōk-ṣya-ti “he will milk” (dhōk-는 그것 중의 하나가 그 guṇa 관계 u인 형태음소적인 진술들의 복잡한 세트에 의해 duh-와 관계를 맺는다: 다른 것은 한 음절 안에서의 단지 하나에게만 기식화된 폐쇄음들의 발생 이라는 제한들을 포함한다);
nud- “to push”: nōt-sya-ti “he will push”.

직설법 능동태 단수에 있어서 guṇa를 지니는 즉 이형 -nō-를 지니는 접미어 –nu-가, 동사 현재시제 류형들 중의 하나에서 발견된다. 예를들어 āpnōti “obtains”, āpnuvanti “they obtain”. 근본 동사 형태소들의 어떤 명사 파생어들은 guṇa와 접미사 –a-를 지닌다. 예를들어,

vid- “to know”: vēda- “konwledge”;
plu- “to float”: plava- “raft, boat”

어떤 명사와 형용사들은 근본명사의 마지막 a 또는 i를 교체하는 접미사 –ya-와 그리고 vṛddhi와 더불어 다른 명사들로부터 파생된다. 예를들어,

dēva “god”: dāivya- “divine”;
kavi- “poet”: kāvya- “poetry”.

2-4)형태론

산스끄리뜨어 문법은 (예를들어 라틴어와 그리이스처럼) 오래된 유형의 인도유럽어들의 그것이다. 낱말들은 두 가지 큰 부류—명사와 형용사와 대명사들을 포함한 명사상당어구(substantive)와 그리고 동사들— 와 여러 사소한 부류들—부사들, 접속사들, 감탄사들— 로 나뉜다. 명사상당어구와 동사 부류들은 각 각 어형

변화(declension, 語形變化)와 활용(conjugation, 活用) 이라는 두 가지 다른 류형의 굴절(inflexion, 屈折)에 의해서 구분된다.

명사들과 형용사들.—이런 하위부류의 어형변화는 수와 격과 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들에 의해서 그 형식들이 분류 가능한 커다란 범형(paradigms, 凡形)들을 보여준다. 아주 복잡함은 명사들 그리고 이런 명사들에 병행하는 형용사들이 이런 범주들과 거의 관계가 없거나 또는 관계가 전혀 없지만 엄밀하게 형식적인 공정하게 많은 수의 하위 부류들로 나뉜다는 사실에 의해서 도입된다. 단수와 **쌍수**와 복수 라는 세 가지 수(numbers, 數)들이 있다. 아주 드문 예외들을 지닌 이런 세 가지 수들에 있어서의 형식들은 자연 수들을 표현한다. *몇 몇 낱말들은 단지 복수들만 발견된다*; 예를들어 dārās "wift", āpas "water". 주격, 목적격, 도구격, 여격, 탈격, 소유격, 위치격(locative, 位置格), 호격 등 **여덟 가지의 격**들이 발견된다. 이 여덟 가지 격들 모두가 다른 형식들을 지니는 것은 단지 가장 공통적인 어형변화의 단수에서만 이다. 다른 어형변화들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수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격들의 형식들은 일치한다. 예를들어 쌍수에는 단지 세 가지 다른 형식들만이 있다.

명사들은 *남성과 중성과 여성*이라는 세 가지 성 부류들로 나뉜다. 명사의 성 부류는 자기 자신의 형식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명사에 수반하는 형용사의 형식을 통해서 더 낫게 전체적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각 성(genders, 性)에 한 세트 씩, 세 가지 세트의 수와 격 형식들을 지니며, 그 형용사의 형식과 그 명사의 정 부류는 일치한다. 성(gender)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가리키는 명사들의 경우에만 자연 성(sex)에 상응한다. 수컷(male)을 가리키는 명사들은 남성(masculine, 男性) 부류에 속하는 반면 암컷(females)를 가리키는 명사들은 여성(feminine, 女性) 부류에 속한다; 중성인 mitram "friend"와 같은 아주 드문 예들이 있다. 다른 모든 명사들은 세 가지 성 부류들 사이에서 나뉜다(라틴어와 독일어체계에서처럼).

베다 **방언**은 수많은 세부적인 형식에서 **고전 산스끄리뜨**와 다르지만, 그 체계는 동일하다.

한 범형으로부터의 어떤 형식들이 있다: 단수 주격 dēvás "god", 목적격 dēvám, 소유격 dēvásya, 쌍수 주격-목적격 vēvā́u, Vedic dévā́l; 복수 주격 dēvā́s, Vedic dēvā́sas, 목적격 dēvā́n.

다른 인도-유럽어에서처럼 산스끄리뜨어에서도 명사와 형용사 어간들의 복합들이 발견된다. 베다 시기에 그것들은 둘 이상의 구성원들을 거의 지니지 않았지만,

서사시에서는 긴 것들이 발생하며 그리고 후에 고전문학에서의 그것들은 자주 과도한 길이를 획득한다.

대명사.—다른 인도 유럽어에서처럼, 제 일 그리고 제 이 인칭 대명사들은 복잡한 어간 이형에 근거한 많은 유일무이한 형식들을 지닌다. 예를들어 일인칭단수 주격 ahám, 목적격 mā́m, 또는 mā, 쌍수 주격-목적격 āvā́m, 복수 주격 vayám, 목적격 asmā́n 또는 nas. 어떤 성의 구분들도 이런 대명사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명사의 그것과 다소 비슷하지만 많은 다름들을 보여주는 어형변화를 지니는 수많은 3인칭 지시대명사들이 있다; 이런 대명사들은 관계사와 의문사와 마찬가지로 성을 지닌다.

동사.—동사의 활용에서 가리켜진 범주들은 시제와 법과 태와 그리고 그 주어의 수와 인칭이다. 수들은 명사상당어구들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이며, 대명사의 인칭들도 세 가지이다. 동사의 한정형은 이런 두 가지 범주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자신의 명사적인 주어와 그 범주들에 있어 일치한다.

동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이형(allomorph, 異形)이 **어근**이라 불리운다. 시제 체계는 현재와 미완료 라는 두 시제를 지니는 *현재* 체계를 포함한다. 특별한 현재 접미사들 또는 다른 접사(affixes, 接辭)들에 의해서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될수있는 많은 유형의 현재체계가 있다. 부정과거(**aorist**, 不定過去)시제는 현재체계보다 단지 것을 더 많은 것을 일반적으로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 가능한 여러 하위 체계들을 지닌다. 부정과거들은 자주 s-접미사를 포함한다. **완료시제**는 그 첫 머리를 중첩 함에 의해서 그 어근으로부터 파생시킬 수 있다. **미래**는 형태음소학에 근거한 참조부호(paragraphs, 단락)안에서 위에서 주어진 유형으로부터 발생한다. *고전 산스끄리뜨*에서는 부정과거와 완료는 미완료와 비교할 때 드물다. *고대 베다 텍스트*들에는 의미의 구분들이 있다. 부정과거는 화자가 말하기 방금 전에 발생했던 과거를 의미하며, 미완료는 자기 자신의 앎으로부터 화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과거 사건을 자주 가리킨다(예를들어 신비적인 과거)고 완료는 과거 행위의 현재 결과를 자주 의미한다.

현재 체계에는 직설, 명령, 희구(opative, 希求: “he might, would do”) 등 세 가지 법(mood, 法)들이 있다. 덧붙혀 베다 방언은 **접속접**을 지녔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직설법 부정과거와 완료 이외에도 많은 양상(modal, 樣相) 형식들을 지녔다.

시제와 법의 각기 연결에는 능동태과 **중간태** 라는 두 갖 태들이 있다. 동사가

이 양자의 태들과 더불어 활용할 때, 때로 “스스로 행해진 행위”(action done for oneself) 라는 중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구분도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동사들은 단지 하나 만의 태 또는 다른 태로 주로 황용한다. 베다 방언에서는 많은 중간 형식들이 수동 의미들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중간태와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특별한 현재 체계가 있다.

인칭과 수의 어형변화 어미들은 복잡해진 이형(allomorphs, 異形)들을 보여준다. 완료를 위한 특별한 세트의 어미들과 그리고 (접미사 a-와 연결되는) 미완료와 부정과거를 위한 다른 세트의 어미들과 그리고 명령을 위한 어미들과 그리고 특히 현재와 미래시제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어미들이 있다.

이런 유형의 활용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종 종 현재 체계 형식에서 발생하는, 강조와 욕망과 **사역** 어간들도 있다.

형용사 형식들 즉 **분사**들은 현재와 완료와 미래 체계들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다 방언에서는 부정과거(aorist, 不定過去)에서도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자동사의 경우에는 능동 과거분사와 타동사의 경우에는 수동 과거분사, 그리고 그것이 보통 필연을 의미하는 “which must be done” 미래 수동분사가 있다.

*비한정형(nonfinite forms, 非限定形)*들은 보통 의도 “in order to do”를 의미하는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having done”을 의미하는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어형변화를하지않는 분사(participle, 分詞)와 **동명사**이다.

일반적으로 *베다 방언은 고전 산스끄리뜨*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부유한 동사 형태론을 지닌다.

동사 어근들 아주 자주 부사적 접두사들과 합쳐진다 그 의미는 때로 요소들의 단순한 연결이며, 보다 더 자주 그것은 훨씬 특수화된다(자신의 의미가 “under”와 “stand”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아닌 영어 “understand”와 비교하라)

2-4-1)문법(Grammer)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처럼 산스끄리뜨는 어형변화하는 언어이다: 많은 량(bulk, 量)의 문법 정보가 형태론에 의해 담지된다. 형태소들은 어간들과 접사들로 나뉠 수 있으며, 그리고 어간들은 더 나아가서 명사적 어간들과 동사적 어근들로 나뉜다. (형용사와 대명사들과 불변화사(indeclinables, 不變化詞)을 포함하는 예를들어 aṇḍa-, ‘egg’, kha- ‘sky, space’, 그리고 bala- ‘strength’에서와 같은 일차적인 **명사적 어**

간들은 더 이상 분해될 수없다. 이차적인 명사적 어간들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다:

ㄱ)접사들이 붙음(affixation)을 통해 다른 명사들로부터 파생된 명사들, 예를들어 kuru + a > kaurava 'a person belonging to the lineage of Kuru'; nara 'man', nara-tva 'manness'
ㄴ)접사들이 붙음을 통해 동사 어근들로부터 파생되는 명사들, 예를들어 kṛ 'do', kar-tṛ 'doer, maker'; gam 'do', gam-ana 'action of going'
ㄷ)복합명사(compounds)들, 예를들어 nara + pati > narapati 'lord of man, king', cakra + pāṇi > cakrapāni 'one who has a discus in his hand, Viṣṇu'

동사어근들은 일차적인 것(예를들어 gam- 'to go')와 이차적인 것(예를들어 putra 'son'>putrīya- 'to want to have son').

어간의 세번째 범주는 **불변화하는 것들의 어간**이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불변화사(particles, 不變化詞: 예를들어 upri 'above')와 전치사들과 후치사들(adhi, pari, anu)과 부사들(satatam 'always')과 연결사(connectives, 連結詞: ca 'and', vā 'or')들과 그리소 심지어 몇 몇 명사들(svar 'heaven')이다.

접사(**affixe**, 接辭)들은 일반적으로 접두사(예를들어 a+gacchat)와 삽입사(infixes, 挿入辭)들과 접미사들이다. 파생 접사들은 이차적인 어건들과 어근들을 생산하며 그리고 어형벼화하는 접사들은 완성된 단어들을 생산한다. 후자는 명사적 어간들의 경우 격-접사들을 포함하며 동사 어근들의 경우 한정동사어미들을 포함한다.

명사어간은 내적인 속성으로서의 성(gender, 性)에 의해 특징화된다.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라는 세 가지 성들이 있다. 성은 문법적이다 그리고 보통 어떤 의미론적인 요소와 상호관련될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암컷(female)과 수컷(male)들은 자주 남성(masculine)과 여성(feminine)이다:

가) nara- 'man'(masc.) vs. nārī- 'woman' (fem.)

중성대명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총칭(generic, 總稱)적이다. 동물적인 것들 사이에서는 남성이 그 총칭적인 것이다:

ㄴ) kim(neu.) 'what?', kaḥ(masc.) 'who(male 또는 female)?', kā(fem.) 'who(female)?'.

명사들의 어형변화는 여러요소들에 의해 영향받는다: (남성과 여성과 중성 등의)

성; 주어진 어간의 마지막 소리와 소리들, 예를들어 nara-의 a, 또는 rājan-의 an; 수(number, 數: 단수와 쌍수와 복수); 그리고 (주격과 목적격과 도구격과 여격과 탈격과 소유격과 위치(locative)격과 호격 등의) 격. 낱말 deva- (남성) 'god'을 위한 명사 어형변화의 본보기는 아래 도표 3에서 주어진다.

산스끄리뜨 명사 변화			
	단수	쌍수	복수
주격	deva ḥ	devau	devā*h*
목적격	deva m	devau	devā*n*
도구격	deva na	devābhyām	devā*ḥ*
여격	dev*ā* ya	devābhyām	devebhya*ḥ*
탈격	dev*ā* t	devābhyām	devebhya*ḥ*
소유격	deva sya	dev*ay* oḥ	devānām
위치격	dev*e*	dev*ay* oḥ	deveṣu
호격	deva	devau	devā*ḥ*

중성명사	단수	쌍수	복수
주격/목적격	vanam	vane	vanāni
호격	vana	vane	vanāni

중성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형식들은 동일하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단수를 제외하면 호격과 동일하다. 중성명사들의 다른 모든 형식들은 그에 상응하는 남성형식들과 동일하다. vana- n. 'forest' 경우의 바로 위 좌측 표 관련 형(식)들을 살펴보라.

mālā	여성	'garland'
도구격	단수	mālayā
여격		mālāyai
위치격		mālāyām

여성명사의 어형변화는 다소 그것의 접사들에 있어 다르다. 바로 옆 우측 표를 참조하라

대명사들의 어형변화들은 다소 명사적 어형변화들과 다르다. 예를들어 여격 단수 남성 형을 살펴보자: deva- > devāya 'to god', ta(d)- > tasmai 'to him'

형용사들은 어형변화에 있어 명사들과 보통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다 산스끄리뜨*의 형태론은 *고전 산스끄리뜨어* 형식들과 어떤 격들에 있어 다르다—예를들어, 주격 복수의 경우, 고전산스끄리뜨어 devāḥ 대(vs. 對) 베다산스끄리뜨

어 devāsaḥ; 도구격 복수의 경우, 고전산스끄리뜨어 devaiḥ 대(vs. 對) 베다 산스끄리뜨어 devedhiḥ.

베다적 **동사 체계**는 *고전적인* 체계 보다 훨씬 복잡하다. 동사 어근들은 비어간적(Athematic, 非語幹的)인 것과 어간적인 것(Thematic) 등 일반적으로 두 가지 류형이다. 첫 번째 류형은 다양한 엑센트를 지니며, 그것의 끝에 직접 덧붙혀지는, 예를들어 as + ti > asti 'is'와 같은, 다양한 어간 형성을 지닌다. 두 번째 류형은 고정적인 엑센트와 어간을 지니며 그리고 모음 a가, 예를들어 budh + a + ti > bodhati 'knows'에서처럼, 이 어간과 마지막 끝에 끼어든다. 이것은 두 번째 류형을 보다 더 규칙적으로 만든다. 어간적인 a가 그 어근의-마지막과 접사의-첫머리 자음들 사이의 훨씬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막기 때문이다. 산스끄리뜨의 역사에는 어간적인 류형을 향해 비어간적인 류로부터 벗어나는 점진적인 움직임이 있다. 고전산스끄리뜨어가 엑센트들을 상실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엑센트들이 파생(derivation, 派生)에 미치는 결과들은 살아있다. 예를들어 i/e/ai, u/o/au, ṛ/ar/ār. 베다어의 경우, 동사는 자주 많은 어간들을 지닌다. 바로 위 우측 표의 어근들 gam- 'to go'와 bhū 'to be, become'의 형(식)들을 숙고해 보라.

현재	gacch-	bhav-
부정과거	gam-	bhu-
완료	ja-gam	ba-bhū
미래	gam-i-ṣya-	bhav-i-ṣya-

각 어근들은 계속적인 또는 그 시점의(punctual)또는 완성된 행위와 같은 그런 다른 시상(**aspectual**, 時相)적인 차원들을 제공한다. 각 어근은 아래 표와 같은 다섯 법(moods, 法)들에 이른다.

직설법	gacch-a-ti 'goes'	bhav-a-ti 'is, become'
금지법	gacch-a-t 'may X go'	bhav-a-t 'may X be/become'
접속법	gacch-ā-ti 'may X please go'	bhav-ā-ti 'may X please be/become'
기원법(optative)	gacch-e-t 'should go'	bhav-e-t 'should be/become'
명령법	gacch-a-tu 'must to'	bhav-a-tu 'must be/become'

현재와 과거와 미래 어간들의 **직설법**은 현재 시제와 과거시제 형들을 지니는 반면 부정과거 직설법은 과거 시제에 한정된다. 다른 현재 어간들은 아래 표와같은 의미들을 가리킨다.

직설법	gacch-a-ti ‘goes’	bhav-a-ti ‘is/become’
강조법(intensive)	jaṅ-gam-ī-ti ‘keeps on going’	bo-bhav-ī-ti ‘keeps on becoming’
사역법(causative)	gam-aya-ti ‘X makes Y go’	bhāv-aya-ti ‘X makes Y be/becomg’
희구법(desiderative)	ji-gam-i-ṣa-ti ‘X himself want to go’	bu-bhū-ṣa-ti ‘X himself wants to be/become

각 시제 또는 법은 일인칭과 이인칭과 3인칭 이라는 세 가지 **인칭**들과 단수와 쌍수와 복수라는 세가지 **수**들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각 시제 또는 법은 다른 끝 철자들과 함께하는 능동과 중간(middle, 中間)이라는 두 가지 **태**(voices, 態)들을 지닌다: gacch-a-ti/gacch-a-te ‘goes’, bhav-a-ti/bhav-a-te ‘is/becoming’

다양한 시제들과 태들을 가리키는 아래 표와 같은 많은 분사형들이 있다

현재능동분사	gacch-ant ‘going’	bhav-ant- ‘being/becoming’
현재수동분사	gam-ya-māna- ‘being gone to’	
현재능동분사	gacch-a-māna- ‘going’	bhav-a-māna ‘being/becoming’
과거수동분사	ga-ta ‘gone to’	
과거능동분사	ga-ta 또는 ga-ta-vant- ‘gone’	bhū-ta-, bhū-ta-vant- ‘that which was/has become’
미래능동분사	gam-i-ṣy-ant- ‘he who will go’	bhav-i-ṣy-ant- ‘he who will be/become’
미래중간/수동분사	gam-i-ṣya-māṇa- ‘that which will be gone to’	

덧붙혀서, 예를들어 아래 표와 같은 많은 **비(non-非)한정 동사형**들이 있다

동명사들	ga-tvā ‘having gone’, ā-gam-ya ‘having come’, bhū-tvā ‘having been/become’, sam-bhū-ya ‘having been borh’
다양한종류의 부(不)정사들	gan-tum, gan-tave, gan-tavai, gam-a-dhyai, gan-toḥ, ‘to to’, bhav-i-tum, bhav-i-toḥ ‘to be/become’
동사적 명사들	gam-ana, ga-ti ‘going’, gan-tṛ- ‘goer’, bhav-ana- ‘being’, bhāv-a ‘being’

그래서 주어진 동사의 경우, 전체 파생형들의 개수는 아주 많다. 이러한 복잡함은 고전언어에서는 크게 줄어들었다. 금지형은 사실 사라졌으며, 접속법은 대부분 명령형으로 합체됐다. 부정과거분사는 손실됐다. 베다 산스끄리뜨어 부정형(infinitives, 不定形)의 풍부한 다양함이 단일 형 -tum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어간의 부정과거와 완료와 과거시제 형들의 다른 의미들이 모두 과거 라는 단일관

념으로 스며들었다. 후기고전산스끄리뜨어의 경우, 한정동사의 빈번함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것의 기능은 분사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동사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우언적(periphrastic) 활용 구문들로 넘겨졌다. 일반적으로 그 언어는 동사적문장들을 넘어서서 명사적문장들로 됐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의 저장고로로서의 그 고전언어는 고대 동사형들의 다양함에로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주어지는 어근 pat- 'to fall'의 현재 능동 형들의 범형이 바로 그 하나의 본보기이다. //

산스끄리뜨어의 현재 시제			
	단수	쌍수	복수
일인칭	pat*ā* mi	mat*ā* aḥ	pat*ā* maḥ
이인칭	pata si	pata thaḥ	pata tha
삼인칭	pata ti	pata taḥ	pata nti

2-5)구문론.

대부분의 구문론은 *명사격들 더하기 동사들과 다른 명사들*의 구문과 관련된다. **어순**은 다소 자유롭다. 그러나 예를들어, **주어+사격(oblique, 斜格)+직접목적어(목적격)+동사 라는 정상적인 어순**이 있다는 것 또는 *sa-/ta-을 지니는 지시사는 그것의 격이 무엇이든 문자의 첫 단어로 나타난다*는 것 등의 진술이 만들어질수 있다. 종속접속사들 또는 관계대명사들을 포함하는 종속 술어들이, 단순 술어들과 나란히,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러한 복합 술어들은 라틴어와 비슷한 복합성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 격들의 사용과 시제들과 법들이 그리이스어와 라틴어와 밀접하게 평행선을 이룬다는 인도유럽어의 그 일반적인 특색을 산스끄리뜨 구문론은 지닌다. 고대 산스끄리뜨어는 그 문장의 중심으로서의 한정동사에 보다 더 의존하는 반면 후기 고전어는 분사들 그리고 순수한 명사문장들의 사용을 통해 보다 더 명사적으로 된다. 산스끄리뜨는 소위 '자유 어-순'(free word-order) 언어들 중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으로 **어순**은, 비록 촛점과 강조의 실용적인 이동이 이런 원시유형을 바꿀 수는 있다고하더래도, **주어 목적어 동사 유형**이다. 감정적이지 않은 기교적인 산문에서의 화제-주석(topic-comment, uddeśya-vidheya)어순이 일반적으로 잇

따른다. 논쟁적인 언어에서는 그 문자의 강조 부분이 자주 문장 맨 앞 부분에 온다. 실용적인 숙고에 의해 구술된 어순은 *대명사*들, *접어*(clitics, 接語, 전접사와 후접사의 통칭)들 등을 위한 특별한 위치들을 요구하는 다른 규칙들과 더불어 운용된다. 바로 이것이 자주 끈겨지는 구문들로 인도한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온다. 그러나 술어로서 기능할 때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온다. 오래된 언어는 부사의 전치사적 용법과 후치사적 용법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여주지만, 후대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후지사적인 쓰임새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동태의 쓰임새가 고전어에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화용론적 담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곳에서조차 심지어, 수동분사의 쓰임새가 실체적인 언어로부터의 능격(erativity, 能格: 타동사문의 모적어와 자동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의 격)성의 영향의 암시로 받아들여진다. 후기 고전어의 구문론은 실체적으로 그것의 사용자들의 첫 번째 언어들의 구문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능격과 같은 그러한 특색들은 다양한 형태의 변해진 빈번함을 통해 산스끄리뜨어에 반영된다.

그 고전어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복합어들—특히 그것들의 음소적인 길이이다. 긴 복합어들이 압축된 기술(frozen description, 記述)을 예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아주 유려하게 사용되는 반면 말할 때의 행위는 분사들과 동사들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전형적인 산스끄리뜨 복합어들의 본보기는 아래 표에서 보여진다 (Jayadeva의 Gītagovinda, 1.4.1에서).

candana-carcita-nīla-kalevara-pīta-vasana-vana-malī, sandalwood-smeared-blue-body-yellow-garment-forest-garland-possessing. NOM.SG.	keli-calan-maṇi-kuṇḍlal-maṇḍita-gaṇḍa-yugaḥ smita-śalī play-moving-jewel-ear-ornament-adorned-cheek-pair. NOM.SG. smile-habit. NOM,SG.
‘[Krishna] is wearing forest garlands, a yellow grament, and has his blue body smeared with the paste of sandalwood. He is always smiling, and his cheeks are adorned with jeweled ear-ornaments which move during his play.’ [끄리슈나]는 수풀 속 꽃 테두리지어진 노란 옷 매무새였고 그의 푸른 몸은 끈끈한 백단향 내음으로 뒤 덮혀 있었다. 그는 항상 웃고 있었으며 그의 뺨은 그가 연주하는 동안 흔들거리는 보석 귀거리로 장식돼 있었다.	

2-6)베다(산스끄리뜨)어에서 고전 산스끄리뜨어로.

고전어로 되면서, 산스끄리뜨는 어느 사람이든 그것의 모국어(mother tongue, 母國語)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그리고 강력한 엘리트 언어로서 솟아 올랐다—그것이 이천년 넘게 유지했던 지위.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발전들을 관찰한다.

ㄱ)고대산스끄리뜨의 많은 위대한 표층적인 형식들의 보존

ㄴ)많은 의미론적이고 구문론적인 특징들의 손실.

ㄷ)인도유럽어로부터의 많은 단어들과 그리고 인도유럽어가 아닌 토속어들이 산스끄리뜨어화된 형식으로 합체됨.

ㄹ)발음과 의미론과 구문론에 미치는 토속어(vernaculars, 土俗語)들의 강한 영향.

이러한 변화는 역사 내 내 발생했으며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지역들과 다른 시기에 산스끄리뜨 사용사들의 현실적인 수행과 다른 한편으로 빠니니 산스끄리뜨의 학원에서 주장되는 기술적인 이상(ideal, 理想) 사이의 어떤 차이가 생겨났다. 산스끄리뜨어 사용자가 보다 더 엘리뜨일수록, 그의 수행은 보다 더 빠니니적 이상에 접근해가는 경향이었지만, 보다 더 대중적일수록 보다 더 토속어적이었다. 이런 다양함들이 주어진 결과, 각 산스끄리뜨 저자의 현실적인 생산들은 이런 사회언어학적인 압력들 사이의 유일무이한 균형들을 보여준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광대한 문서들에서 포착되는 것으로서의 산스끄리뜨 언어의 실제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닐 수 있다. (Madhav M. Deshpan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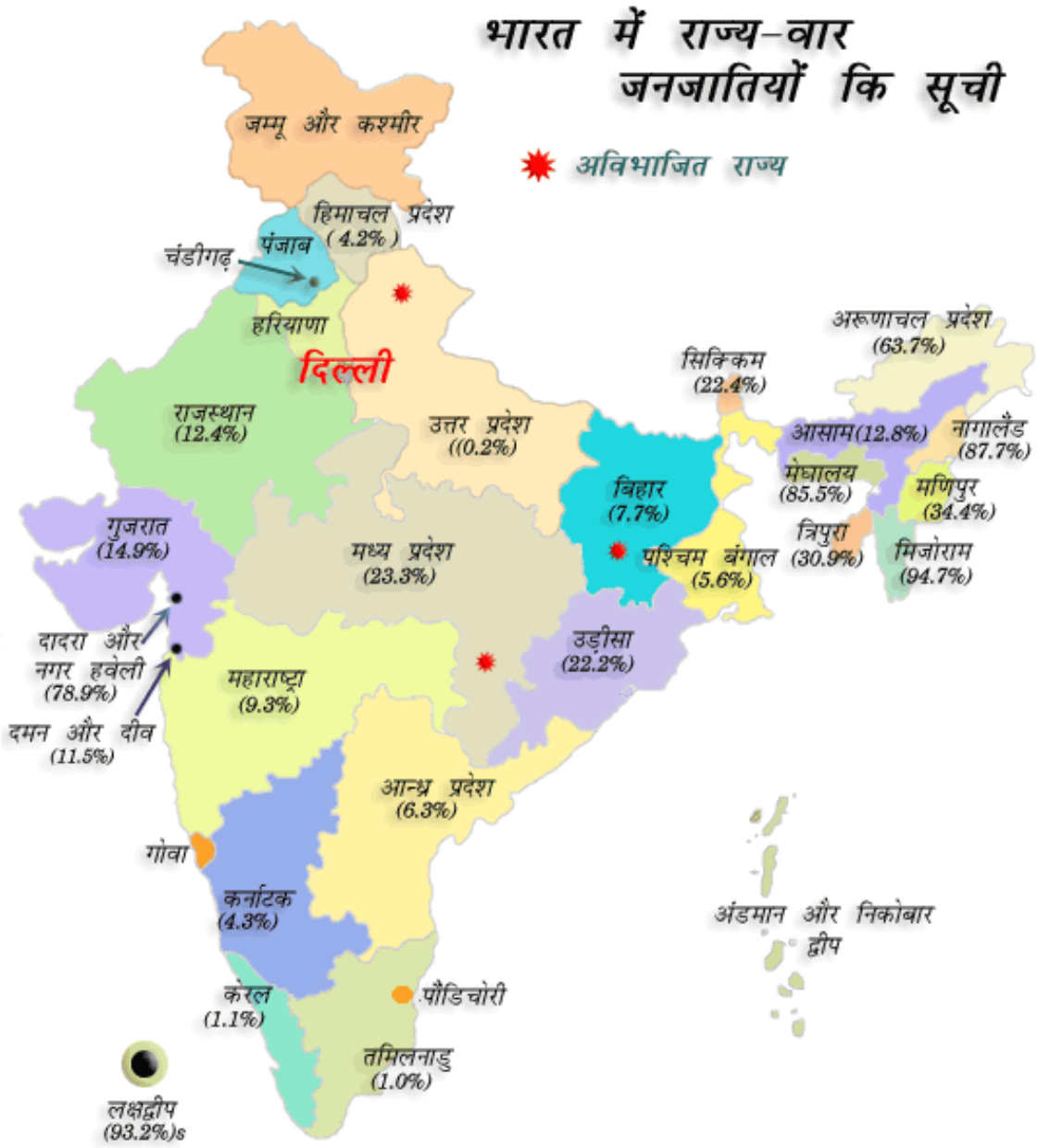
2-7)인도 유럽어와의 관계들.

인도유럽어 모음체계는 *산스끄리뜨*에서 두드러지게 단순화됐다. 소리들 *a, *e, *o는 a로 뭉쳐졌으며, *ā, *ē, *ō는 ā로 뭉쳐진다(coalesced). 그 결과, 모음전환(ablaut, 母音轉換) 라고 불리우는 인도 유럽어의 형태음소적인 체계의 질적인 부분이 애매해진다. 그리고 *e, *o, *ē, *ō, zero와 *a, *o, *ā, *ō, zero가 산스끄리뜨어에서는 a, ā, zero로 귀결된다. 인도유럽어 자음소들은 부분적으로 더 낫게 보

존된다. 산스크리뜨 t, d, dh(그리고 비슷한 세트들)이 세 가지 인도유럽어 음소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말이다.(이에 대조되는 어떠한 점이 마찬가지로 그리이스어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라틴어와 독일어에서 유지된다). 다른 한 편으로 인도유럽어 순구개음(labiovelars, 脣口蓋音)들과 연구개음(velars, 軟口蓋音)들이 뭉쳐지며, 인도유럽어 경구개(palatal, 硬口蓋音)모음들이 잇따를 때 *e가 산스끄리뜨어 a로 되기 전의 어떤 기간에 *경구개음화* 된다. 인도유럽어 무성 경구개 폐쇄음은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연구개음과 순구개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유지된다(인도유럽어 *□k: 산스끄리뜨 ś).

일반적으로 산스끄리뜨는 다른 언어들 보다 더 낫게 인도유럽어의 형태론적 체계를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정도에서 그것은 시원적인 인도유럽어로서의 자신의 평판을 보존한다.

3)힌디(Hidī)



Hindī는 기록된 133,500,000 명의 화자들을 지닌 인도의 국가언어이다.

힌디 또는 고급(high)힌디는 19 세기 켈커타 Fort William의 College에서 영국 시민 종사자들에게 제공된 언어계획을 통해 표준화된 언어로 발전했다. 그것은 Delhi 근방의 그리고 상류 Gangetic Doab에서 말해진 자국어(nernacular, 自國語)에 맞추어졌으며, 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사용된 언어로서 퍼져나갔다. 후에 그것은 문어적인 의도로 사용됐으며 결국 그것은 현대 인도-아랴어들 중 그 어느

것에도 이전에 드물었던, 산문적인 작문의 탈것으로 됐다(서부 힌디 개괄에 대해서는 Linguistic Survey of India, vol. ix, pt. i, pp. 50-5, 1916을 보라).

"Hindī" 라는 말은 서부와 동부 두 그룹의 방언들에 적용된다. **서부 힌디**, 즉 Gangetic Doab 중 상류와 그 북 남 쪽 지역의 인도-아랴 방언들은 Krishna 경배에 봉헌되는 광범위한 문헌을 지닌 Mutta(Mathura) 근방에서 말해지는 *Braj Bhāṣā*(Braj Bhāshā 또는 Braj Bhākhā) 라는 자신의 표준 방언들 중의 하나를 가졌다. 서부 힌디의 다른 방언들은 고급 힌디(High Hindī)가 거기에 파생된 *Hindustānī*이다. 서부 힌디는 Seorge A.Grierson 경에 의해 나뉘어진 분류에서의 중간적인 그리고 외부의(intermediate and outer) 인도-아랴어들과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Madhyadēśa(Midland)의 그 언어를 대표한다. 서부힌디는 네 가지 주요한 방언들, 곧 Bundelkhand의 *Bundēlī*, *Braj Bhāṣā*, 중앙 Doab와 그 북쪽의 *Kanaujī*, 그리고 Delhi와 상부 Doab의 토속어 *Jindustānaī*을 지닌다. Jumna 건너 편 상부 Doab의 서쪽은 Bāngarū 라는 다른 방언이다. Kanaukī는 Braj Bhāśā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 것들 둘은 약 1850 년 까지 북인도의 위대한 문어(literary, 文語)적인 장치(vehicles, 裝置, 탈 것)인 *Awadhī*와 공존했다. 인도의 거의 모든 고전 문학은 종교적이다. Braj Bhāṣā는 Krishna와 관련되며, Awadhī는 Rāma 종파와 이에 연관된 서사시와 결부된다.

Oduh와 Barhelkand와 Chattisgarh에서 말해지는 중부적인(Intermediate)인도-아랴어인 **동부 힌두**는 위대한 그리고 중요한 문헌을 지닌다. 그것의 가장 위대한 저술가는 시인이며 개혁가이고, 17 세기 초엽에 죽은 **Tulsī Dās**이다. 그의 시대 이후 동부 힌두는 서사시의 북 인도어가 됐다. 동부힌디는 그 동쪽에는 *Bihārī*를 그리고 그 남부에는 *Marāthi*를 지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는 외부(outer, 外部)언어이다. Oudh에서 말해지는 *Awadhī(Avadhī)*는 동부힌두의 가장 중요한 방언이다. Chattīsgarhī와 Bagēlī 라는 다른 방언들은 기록된 문헌들을 거의 지니지 못했다(동부힌두의 개괄을 위해서는 Lingusitic Survey of India의 vol. vi를 보라).

19세기 초엽 영국 영향 하에서의 다른 인도문학과 마찬가지로, *현대 힌두 문학*은 정교한 운문(verse, 韻文)의 관습과 주제들로부터 벗어나 소설, 짧은이야기, 수필, 신문기고문, 전기, 역사, 문학비평, 비극과 일인극 등의 서부 산문 형식들에 적절한 표준언어 향하고 있다. 새로운 주제들은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 인도사회 구조로 들어온 사회, 정치, 지성적이며 물질적인 역동적인 변화들을 반영한다.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주제들이 종교적이며 비전(esoteric, 秘傳)적인 주제들보다 선호된다. 예를들어 일상적인 삶과 전이되고 있는 사회와 사회개혁의 욕구 등.

//**Hidni**는 인도유럽어군의 인도-이라니안 가지에 속하는, 북인도의 인도-아랴(Indic)어이다. 힌디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재 언어로서 인도 안의 2 억 명 이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Fiji, Guyana, Mauritius, South Africa, Surinam, Trinidad와 다른 나라들 안의 인도 태생의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진다. 그것은 영어와 더불어 인도의 공식언어 지위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Bihar, Haryana, hmachal Pradesh, Mdhya Pradesh. Rajasthan, 그리고 Utter Pradesh의 인도 주들의 공식언어이다.

3-1)역사.

인도의 인도아랴어들은 세 가지 국면들로 발전됐다고 믿어진다. *베다산스끄리뜨와 고전산스끄리트*에 의해 대표되는 Old Indo-Aryan은 기원전 1500부터 대략 기원전 600년에 걸쳐 있다. Prakrit와 *Pali*와 Apabhraṃśas에 의해 대표되는 Middle IA은 초기(기원전600~기원전200)와 전이기(기원전200~기원후600)와 후기(기원후 600-1000)으로 나뉜다. Bengali와 Hindi와 Marathi와 같은 그런 현대 또는 새로운 (New)인도아랴어들은 기원후 1000~1200년 사이에서 구분된 것들이라고 추측됐다.

Hindī는 8세기와 10세기 사이의 초기 무슬림 지배 동안에 시장과 군대주둔지의 사투리(parois, 방언 放言)로 돌출했다고 말해진다(Rai 1984). Khaṛi boli 라고 알려진 *Delhi 주위 지역 말*은 Afgans, Arabs, Persians, 그리고 Turks이 지역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들을 위해 채용한 공통언어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것은 Perso-Arabic 스크립트로 쓰여졌던 그리고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부터의 많은 차용어들을 지녔던 (Turkic orud 'camp'로부터의) '*Urdu*'라고 불리우는 다양함으로 점차 발전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언어는 그런 차용어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결국 그것은 산스끄리트로부터는 어휘를 그리고 Prakrits와 Aphbhraṃśas로부터는 자유로운 관행(conventions, 慣行)들 받아들였다(look ... for). 이러한 결과의 다양함이 인도 사람들과 언어들을 가리키는 페르시아 낱말로부터 온 '**Hindi**' 라고 알려지게 됐다. Hindi와 Urdu의 공통 일상어적인 형식이 **Hindustani**로 불리운다. 힌디와 우르드는 12세기 이후에 문어로 사용됐다.

3-2)음성학.

Hindi의 분절적인 음소들의 목록은 아래 표 1과 2에 나타난다.

TABLE 1. *Hindi Vowels*

	Front	Central	Back
High			
Tense	i		u
Lax	ɪ		ʊ
Mid			
Close (tense)	e		o
Open			
Tense	ɛ		ɔ
Lax		ə	
Low (tense)		a	

TABLE 2. *Hindi Consonants*. Sounds occurring only in loan words are in parentheses.

	Labial	Dental	Retroflex	Palatal	Velar	Uvular
Occlusives						
Voiceless						
Plain	p	t	ṭ	c	k	(q)
Aspirated	ph	th	ṭh	ch	kh	
Voiced						
Plain	b	d	ḍ	j	g	
Aspirated	bh	dh	ḍh	jh	gh	
Nasals	m	n	(ṇ)	(ñ)	(ŋ)	
Fricatives						
Voiceless	(f)	s	(ṣ)	ś	(x)	h
Voiced		(z)		(ž)	(γ)	
Vibrants						
Plain		r	ṛ			
Aspirated			ṛh			
Lateral		l				
Semi-vowels	v			y		

무성 기식 파열음과 무성 무기식 파열음 사이의 고대인도아랴어적 구분(kal 'time', khal 'skin')과 마찬가지로 유성 기식 파열과 유성 무기식 파열음들 사이의 인도유럽어적 근원적인 구분(예를들어 *ghṛdho, Hindi ghər 'house')을 유지한다. 다른 고대인도아랴어적 특색인 반전(retroflection, 反轉)도 유지된다(tota 'parrot', ṭoṭa 'lack'). **모음**에서의 구모음(oarl, 口母音)과 비음(nasal, 鼻音)사이의 그리고 이완(lax, 弛緩)(짧은)과 긴장(tense, 緊張) 사이의 구분이 만들어졌다.

강세(**stress**, 强勢)는 힌디에서 특징적이지 않다: 보통 마지막이 아닌 가장 무거운 음절에 강세가, 중세인도아랴어에서처럼, 주어진다. **발음**에 있어서는 모음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질이 강세 위치와 상관없이 유지된다. 예를들어 déhati 또는 deháti 'rustic'.

3-3)쓰기법(script).

*힌디*는 마찬가지로 *산스끄리뜨, Marathi,* 그리고 *Nepali* 에서도 쓰여지는 **데브나가리 스크립트**로 쓰여진다. 이런 체계는 기원전 500 년 전에 잘 확립됐던 Brahmi 스크립트의 후손이다. 브라흐미는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그리이스어와 라틴어를 위한 스크립트로 발전했던 동일한 셈어 스크립트의 후손이라고 일반적으로 믿어

져왔다. 데브나가리 스크립트는 '알파-음절적'이다. 즉 잇따르는 모음 /ə/를 그 자체로 함축하거나 또는 다른 모음들을 위한 의무적인 분별기호들을 수반하는 자음 기호로 분절적인 낱개는 구성된다. 덧붙혀, 낱말-맨 앞에 오거나 또는 다른 모음이 잇따를 때의 모음은 독립적인 기호들을 지닌다. 쓰기법과 발음 사이에는 공정하게 규칙적인 상호대응이 있다 그러나 글로 쓰여진 ə의 모든 경우들이 발음되는 것은 아니다(McGregor 1977).

3-4)형태론.

3-4-1)명사(적인 것들, nominals)(Kellogg 1938을 참조하라).

힌디 명사들은 수와 성과 격을 가리키기 위해 변한다. 단수와 복수 라는 두 가지 **수**들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들이 있고 직접격(direct, 直接格)과 사격(oblique, 斜格)과 호격(vocative, 呼格) 이라는 세 가지 **격**들이 있다. 사격 형식들은 명사 뒤에 후치사가 올 때 사용된다. 자신들의 성의 부류와 그리고 자신들의 마지막 분절들의 음성학적인 특성에 의존하여 다르게 변화한다. 아래 표 3을 참조하라.

TABLE 3. *Hindi Noun Forms*

	Singular	Plural
Masculine Nouns Ending in /a/		
Direct	*lərka* 'boy'	*lərke*
Oblique	*lərke*	*lərkō*
Vocative	*lərke*	*lərko*
Masculine Nouns Ending in /i u/ or Consonant		
Direct, Oblique, Vocative	*sunar* 'goldsmith'	*sunar*, *sunarō*, *sunaro*
Feminine Nouns		
Direct, Oblique, Vocative	*mata* 'mother'	*mataē*, *mataō*, *matao*

예를들어 raja ‘king’처럼, -a로 끝나는 어떤 남성명사들은 복수 직접격과 단수 사격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형용사들은 명사 앞에 오며, -a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명사와 수와 성과 격에 있어 일치한다. 예를들어 əccga ‘good’은 남성 단수 직접격이나, 그 남성 범형의 나머지 것은 acche이다. 그 여성형은 모든 수들과 격들에 있어 əcchi 이다.

부사들과 **후치사**(postposition, 後置詞)는 소유격/2격(possessive/genitive)을 제외하면 불변사이다. 격 관계들을 가리키는 주요 후접사들은 ‘동작주체를 나타내는’(agentive) ne, ‘목적격/여격’ ko, ‘도구격/탈격/comitative’ se, ‘위치격’ mē, ‘위치격’ pər, ‘소유격/2격’(A = a, e, 또는 i, 형용사에서와 같은 일치를 지닌다) kA, 그리고 ‘benefactive’ keliye이다. 여러 복잡한 후치사들은 예를들어 ke upər ‘above’와 ke bad ‘after’ 등에서와 같은 여러 관계들을 가리킨다.

대명사들은 명사들보다 더 많은 격 형식들을 지닌다. 아래 도표 4를 보라.

TABLE 4. *Hindi Pronouns*

	1st Person		2nd Person		3rd Person			
					Near		Remote	
	Sg	Pl	Sg	Pl	Sg	Pl	Sg	Pl
Direct	*mē*	*həm*	*tu*	*tum*	*yəh*	*ye*	*vəh*	*ve*
Oblique	*mujh*	*həm*	*tujh*	*tum*	*ɪs*	*ɪn*	*ʊs*	*ʊn*
Possessive	*merA*	*həmarA*	*terA*	*tumharA*	*ɪskA*	*ɪnkA*	*ʊskA*	*ʊnkA*

3인칭 대명사 형식들은 원근(proximate and remote, 遠近) 지시사들(yəh ‘this’, vəh ‘that’)와 동일하다. 1 인칭과 2 인칭 대명사들은 동작주어를 나타내는 후치사 ne를 지니는 그것들의 직접격 형식들로 사용된다. 사격(obliq, 斜格) 대명사들은 어떤 후치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특별한 종합적(syncretic, 綜合的)인 형식들을 지닌다: 그래서 3인칭 복수형은 동작주어를 나타내는 후치사와 함께 ɪnhōne, vnhōne이다. 목적격/여격 후치사를 지니는 사격 단 복수 형식들은 –e를 지닌 선택적인 형식들을 지닌다. 그래서 mukh ko 또는 mvjhe ‘(to)me’.

힌디는 수와 격의 특징들에 해당되는 변화를 하지않는, 특별한 2인칭 **존칭** *대*

명사 ap을 지닌다. **재귀**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ap 'self'이다—사격과 소유격 형 əpnA도 지닌다. 겹쳐진 형식 əpne ap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칭들에서 재귀대명사로 사용된다.

의문 대명사들 kɔn과 kya은 각 각 생물과 무생물에 사용된다. 이것들의 사격 형식들은 kɪse, kɪnē 등의 종합적인 형식들과 함께 단수 kɪs와 복수 kɪn이다.

복합의 친숙한 유형들 이외에도, 겹침 그리고 부분적인 겹침 또는 울리는(echo-) 복합이 강조와 분배와 무규정의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들어 lal-lal kəmiz 'deep red shirt', bəṛe bəṛe məkan '(various) large houses', 또는 pani-vani 'water and other beverage'. 의미와 관계되는 두 단어들을 복합은 흔하다. 예를들어 ghər-dvar 'house-doorway' 'home'.

3-4-2)동사.

힌디 동사들은 두 가지 주요한 파생 패턴들에 포함된다. 낱말 끝에 붙음을 통해 사역 동사들을 만들어 내는 그 첫번째 패턴은 고대인도아랴어의 유산이다. 아래 표 5를 보라.

TABLE 5. *Hindi Causative Formations*

Intransitive	Transitive	Double Transitive	Causative
bən 'be made'	*bəna* 'make'	——	*bənva* 'have someone make something'
——	*sikh* 'teach'	*sukha* 'teach'	*sukhva* 'have someone teach someone'

기원후 600년과 1000년 사이에 도입된 새로운, 두 번째 장치(device, 裝置)는 bhag ja 'run go' = 'run away', pəka de 'cook give' = 'cook for someone', 또는 mar ḍal 'hit pour' = 'kill someone'과 같은 식의 일련의 동사구문들을 생산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또는 본 동사의 의미를 제한하거다 또는 그것에 의미의 미묘한 차이(shade)를 덧 붙힌다.

생산적인 동사 복합의 다른 류형은 명사적 요소와 동사적 요소를 연이어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prəšənsa kərna 'admiration to do' = 'to admire', sucna dena 'infomation to give' = 'to inform'.

동사 'see'에 의해 본보기가 주어지는, 다음과 같은 **활용 형식들로 동사**들은 발생한다: 어근 dekh, 미완료 (그리고 현재 분사) dekhtA, 완료 (그리고 과거 분사)

dekhA, 그리고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 dekhnA. 한정동사 형들은 시제와 시상과 법의 구분들을 나타낸다. **기원**법의 형식은 어근 더하기 1인칭단수 접미사들 -ū, 2&3인칭단수 –e, 1&3인칭 복수 -ē (마찬가지로 2인칭 존칭), 그리고 2인칭 복수 -o이다. **미래** 시제는 기원법에 –gA를 덧 붙히므로서 형성된다.

어근에 의해서 또는 2인칭 복수 기원법에 의해서 또는 어근 + 존칭 –ιye(± -gA) 또는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에 의해서 다양하게 **명령**법은 표현된다.

미래가 아닌 직설법 형식들은 계사 ho의 보조 형식이 잇따르는 미완료 또는 완료 분사로 구성된다. 가능성 또는 추측 또는 우연을 표현하는 **접속**법은 조동사 ho의 형식들이 잇따르는 미완료와 완료 분사들로 구성된다. 미완료분사는 사실과 반대되는 것(counterfactuals)들을 표하는 것에 있어서의 한정 형으로서 사용되며, 완료 분사는 과거(preterit, 過去)를 한정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조동사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우언적(periphrastic) '계속' 시제*들은 어근+조동사 eəha + ho의 형식들로 구성된다.

한정동사들은 타동사 문장에 있어서의 집적 격 표시되지않은 명사—전형적으로 주어임—와 보통 인칭과 수와 성에 있어 **일치**한다. 만약 그러한 명사가 현재하지 않는다면 동사는 그것의 '중성'(neutral) 형식 즉 남성 3인칭 단수형을 취한다. 분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명사들과 성과 수와 격에 있어 일치하며,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도 이러한 범주들로 변한다.

3-5)구문론.

힌디 문장을 이루는 요소들의 순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다. 의문 문장 또는 다른 문장 류형에 있어서의 어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명사의 문법적 기능들이 보통 그 명사들에 잇따르는 후치사들에 의해 지시되므로, *명사적 구성요소*들은 자유롭게 주제적인 의도들을 위해서 사라질 수(moved around)있다. **존재문장**들의 경우에는 위치부사와 시간부사들이 문장의 첫 위치에 온다:

ㄱ)Mez pər kιtab hε.
table on book is.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자동사 문장과 그리고 **완료적이아닌 타동사 문장**의 경우, 그 주어는 후치사를 취하지 않으며, 그 동사는 수와 성과 인칭에 있어 그 주어에 일치한다. 동작주체를 나타내는 후치사 ne가 그 주어 뒤에 오는, 타동사 완료 문장들의 경우 그 동

사는 직접 목적어와 일치한다([타동사문의 목적어와 그것에 대응하는 자동사문의 주어가 일치하는] '능격'(ergative, 能格)구문). 그러나 그 직접목적어에는 어느 격에서든 자신의 중성적 형식 즉 3인칭 단수 남성형을 유지하는 후치사 ho가 잇따른다:

ㄴ)Lərka kɩtab pərṭhta hɛ.
boy(남성) book(여성) read.미완료(남성) 현재.
'the boy reads the book.'

ㄷ) Lərke ne kɩtab pərḥi.
boy(남성) AGT book(여성) read. 완료(여성)
'the boy read the book.'

ㄹ) Lərḳi ne səhelɩyō ko pukara.
girl(여성) AGT friends(여성복수) OBJ call-완료(남성단수)
'the girl called her friends.'

의미론적으로, 힌디는 정적인 동사 대(vs. 對) 동적인 동사, 의욕적인 동사 대 의욕적(volitional, 意慾的)이지 않는 동사, 그리고 감정적(affectitive, 感情的)동사대 감정적이지 않는 동사 사이를 구분한다. 의욕적인 동사는 그 동작의 주어를 요구하며, 감정 동사는 그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가 그 동작의 주어에 직접 향해진다는 것을 함축한다(Kachru 1980). 동작의 대상[목적어] 대(vs. 對) 나타내지는동작의(agentive) 주체(표시되지않는 것 또는 ne-표시되는 것)을 지니는 사역적인 형태론과 문장구조는 정적인/동적인 그리고 의욕적인/의욕적이지않은 의미들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수동태**는 동사의 완료어간 더하기 모든 시제/시상/일치 어미들을 취하는 조동사 ja 'go'를 사용함에 의해서 형성된다. 능동적인 주어가 (후치사 se와 더불어 표시될 때) 유지될 때 그 문장은 보통 그 동작주체(tha agent)의 능력에 대한 진술로 해석된다

. 대조적으로 그 동작주체가 없는 수동문은 영어가지니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동사의 어근에 kər를 덧 붙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접속법'(**conjunctive**)은 연이은 행위들/과정들 또는 원인과 결과들 또는 의도와 같은 그러한 의미들을 표현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절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동작주체를 나타내는]동작법(**agentive**, 動作法)은 동사적 명사의 사격 형에다 접미사 –vala를 더함에 의해서 형성된다.

종속절 안의 명사와 함께하는(with), 그리고 그것의 지시 짝인 주절 안의 vəh ‘that’을 지니는 한정사(determiner, 限定詞)로서의 관계 표시자 jo ‘wh-’를 사용하여 **관계절**들은 형성될 수 있다:

ㅁ) Jo lərṛka aj ap se mɩla, vər kəl mujh se mɩla tha.
wh boy today you with meet.완료 that yesterday me with meet.완료 과거
‘the boy who met you today had met me yesterday.’

관계 절은 마찬가지로 후치사-머리(the post-head position)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본절이 그 관계절에 잇따를 수 있다.

*힌디*는 화제와 그리고 형식성의 수준과 그리고 언어적 사용의 다른 문백적 측면들에 의존하는 *여러 스타일*들을 지닌다. 고도로 산스끄리뜨화된 스타일은 행정과 입법화 그리고 문학비평과 철학과 종교의 공식적인 언어로서 사용되며, 페르시아어화된 스타일은 하급법원(courts)이나 영화 그리고 선택된 문화 영역들에서 공통이고, 그리고 영어와 뒤섞인 스타일은 신문(저널리즘)과 일상(day to day)행정과 은행업무와 고등교육과 과학과 기술(technology, 技術)에서 사용된다.(Yamuna Kachru) //

차례

1)인도아랴어와 인도이란어 1
1-1)현대 언어들 5
2)산스끄리뜨어 13
2-1)역사 14
2-1-1)빠니니의 문법 18
2-2)글쓰기 체계 19
2-3)음성학 24
2-3-1)음소 25
2-3-1-1)모음들 25
2-3-1-2)자음들 25
2-3-2)음성학 25
2-3-3)엑센트 27
2-3-4)형태음소학 27
2-4)형태론 29
2-4-1)문법 32
2-5)구문론 37
2-6)베다산스끄리뜨어에서 고전산스끄리뜨어로 39
2-7)인도유럽어와의 관계 39

3)힌디 41
3-1)역사 42
3-2)음성학 44
3-3)쓰기법 45
3-4)형태론 46
3-4-1)명사적인 것 46
3-4-2)동사 48
3-5)구문론 49

그림 도표 차례

1)인도행정지도 1
2)인도아랴어와 인도이란어 계보 3
3)인도아랴인의 침입로 4
4)인도아랴어 지도 6
5)드라비다어 지도 9
6)이란 행정지도 10
7)이란어 지도 11, 12
8)산스끄리어 배경지역 13
9)빠니니 우표 18
10)산스끄리뜨어 모음 ... 21, 23, 24
11)데브나가리 자음 22, 23, 24, 26
12)산스끄리뜨어 명사변화표 34
13)산스끄리뜨어 동사시제표 35, 37
14)산스끄리뜨어 동사법들표 ..... 35~36
15)산스끄리뜨어 분사형들 36
16)산스끄리뜨어의 복합어들의 예 38
17)힌디어 지도 ..... 41~42
18)힌디어 모음들 44
19)힌디어 자음들 45
20)힌디어 명사형들 46
21)힌디어 대명사형들 47
22)힌디어 사역형들 48